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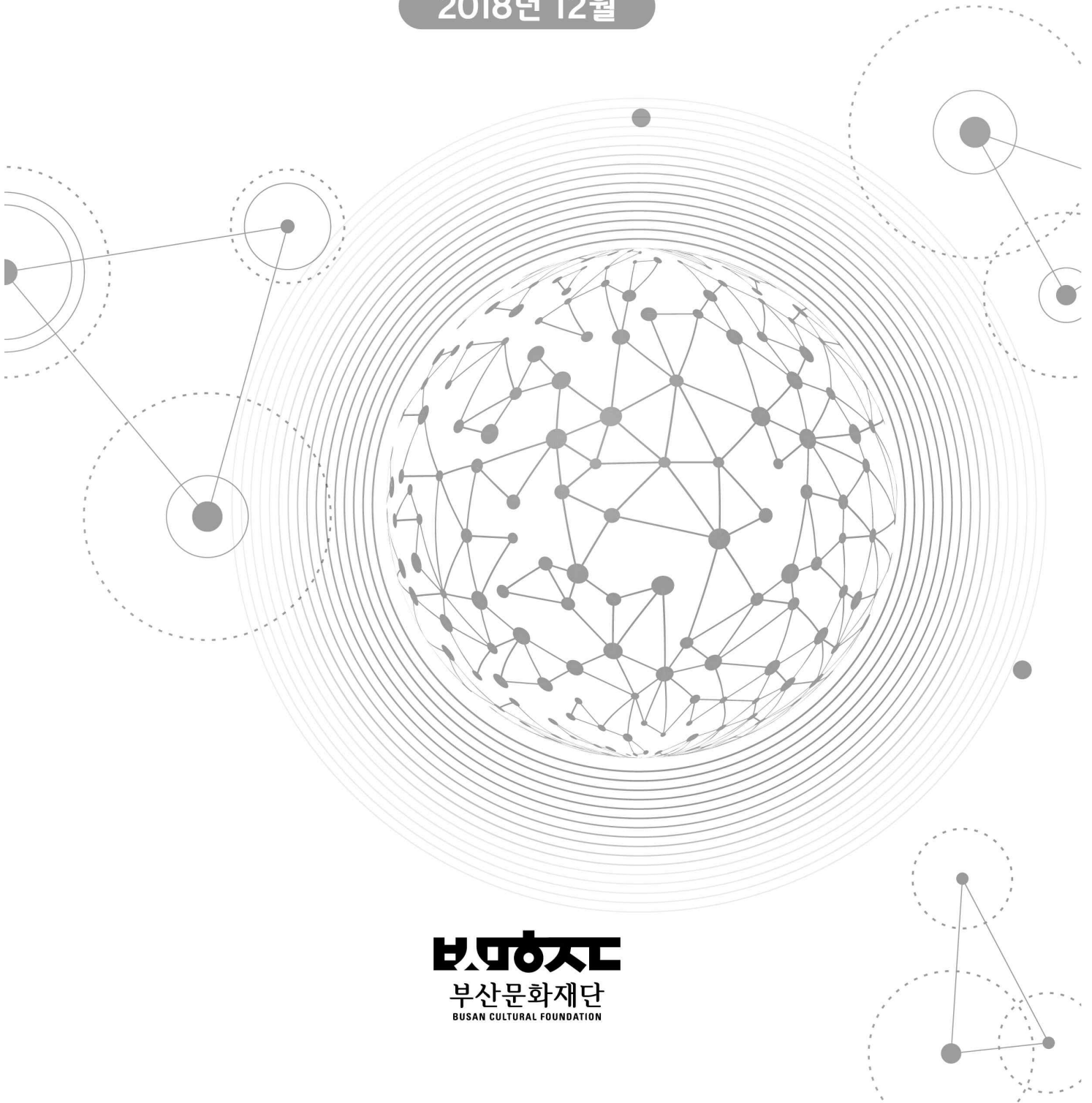
2018년 12월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8년 12월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제 출 문

부산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책임연구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강 영 심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2018년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으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여연구진

책임 연구원	강영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 경 석영미 이유리	한국국제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대구교육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보조 연구원	우정아 한민정	한국장애인복합문화센터장 부산 홀트복지관 맞춤형 놀이체육교실 강사
기획 및 협조	고윤정 한현우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동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목 차

I. 연구 개요	3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장 연구 범위와 방법	5
제3장 연구 수행 절차와 일정	8
II. 장애인과 문화예술활동	11
제1장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정책	11
제2장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16
III. 장애인과 문화예술정책	23
제1장 국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23
제2장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30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38
IV.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41
제1장 일반적 현황	41
제2장 문화예술 활동과 형태 영역	47
제3장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과 공간 영역	52
제4장 교류와 협업 영역	58
제5장 교육 영역	61
제6장 창작 여건과 인식 영역	64
제7장 문화예술 활동 관련 경제 활동	86
V.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91
제1장 결론 및 시사점	91
제2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97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언	98

VI. 참고문헌	101
VII. 부록	105
1.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설문지	105
2.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16

표 목 차

〈표 1〉 성 별	i
〈표 2〉 연 령	ii
〈표 3〉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분야	ii
〈표 4〉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	iii
〈표 5〉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	iv
〈표 6〉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	iv
〈표 7〉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v
〈표 8〉 창작 공간 보유여부	v
〈표 9〉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	vi
〈표 10〉 재능 발견 이후 받은 교육	vi
〈표 11〉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	vi
〈표 12〉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vii
〈표 13〉 예술인패스 이해여부	vii
〈표 14〉 부산문화재단 이해여부	vii
〈표 15〉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viii
〈표 16〉 문화예술 활동이 행복하다	viii
〈표 17〉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viii
〈표 18〉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ix
〈표 19〉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ix
〈표 20〉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x
〈표 21〉 설문지 구성	6
〈표 22〉 연구일정	8
〈표 23〉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17
〈표 24〉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개요(2010년~2017년)	31
〈표 25〉 설문지 수집 및 사용현황	41
〈표 26〉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3)	41
〈표 27〉 성별	43
〈표 28〉 연령	43

〈표 29〉 거주지	44
〈표 30〉 거주형태	44
〈표 31〉 학력	45
〈표 32〉 장애발생	45
〈표 33〉 장애유형	46
〈표 34〉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분야	47
〈표 35〉 총 활동 기간	47
〈표 36〉 문화예술 활동 입문 계기	48
〈표 37〉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	48
〈표 38〉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	49
〈표 39〉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	50
〈표 40〉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	50
〈표 41〉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업	51
〈표 42〉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52
〈표 43〉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유형 비교	53
〈표 44〉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1순위 집단 비교	54
〈표 45〉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2순위 집단 비교	54
〈표 46〉 창작 공간 보유여부	55
〈표 47〉 창작 공간 보유 집단비교	55
〈표 48〉 창작공간의 형태	55
〈표 49〉 공간 이용시 겪는 어려운 점	56
〈표 50〉 문화예술 활동시 도움 필요 여부	56
〈표 51〉 공간 이용시 겪는 어려운 점	57
〈표 52〉 문화예술 단체 가입 여부	58
〈표 53〉 가입한 단체유형	58
〈표 54〉 단체 가입의 이유	59
〈표 55〉 단체 가입하지 않은 이유	59
〈표 56〉 협업경험 형태	60
〈표 57〉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	61
〈표 58〉 예술적 재능 발견자	61
〈표 59〉 받은 교육	62

〈표 60〉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	62
〈표 61〉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	63
〈표 62〉 도움되는 정도	63
〈표 63〉 지난 3년간 지원 받은 기관	64
〈표 64〉 지난 3년간 받은 지원내용	65
〈표 65〉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액	65
〈표 66〉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66
〈표 67〉 예술인패스 이해여부	66
〈표 68〉 부산문화재단 이해여부	67
〈표 69〉 알게 된 경로	67
〈표 70〉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68
〈표 71〉 문화예술 활동이 행복하다	68
〈표 7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69
〈표 73〉 문화예술 활동 인식(전체)	69
〈표 74〉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69
〈표 75〉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70
〈표 76〉 문화예술 활동 한계 인식(전체)	70
〈표 77〉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기인식과 한계 인식	71
〈표 78〉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71
〈표 79〉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유형 비교	72
〈표 80〉 장애 문화예술인 사회적 평가 만족도	72
〈표 81〉 장애 문화예술인 사회적 평가 만족도 유형 비교	73
〈표 82〉 경제적 보상 수준 만족도	74
〈표 83〉 경제적 보상 수준 만족도 유형 비교	74
〈표 84〉 창작 발표 기회	75
〈표 85〉 창작 발표 기회 유형 비교	76
〈표 86〉 문화예술 활동 지원	77
〈표 87〉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차이	77
〈표 88〉 장애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	78
〈표 89〉 장애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 유형 비교	79
〈표 9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의사반영 여부	80

〈표 9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의사반영 여부 유형 비교	80
〈표 92〉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전체)	81
〈표 93〉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과 지원에 대한 인식.....	81
〈표 94〉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유형 비교	82
〈표 95〉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83
〈표 96〉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1순위 집단비교	84
〈표 97〉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순위 집단비교	85
〈표 98〉 문화예술 활동 투입시간	86
〈표 99〉 2017년 연간 총소득	86
〈표 100〉 고용형태(주업인 경우)	87
〈표 101〉 직업 또는 업무	87
〈표 102〉 고용형태(주업이 아닌 경우)	88
〈표 103〉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이유	88

그림 목 차

[그림 1] 문화예술교육	11
[그림 2]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13
[그림 3]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추진 계획안	30
[그림 4]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97

연구 요약

1. 조사목적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파악 및 현황조사

2. 조사대상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장애 문화예술인 330명

3. 조사기간 : 2018년 7월~12월

4. 조사방법 :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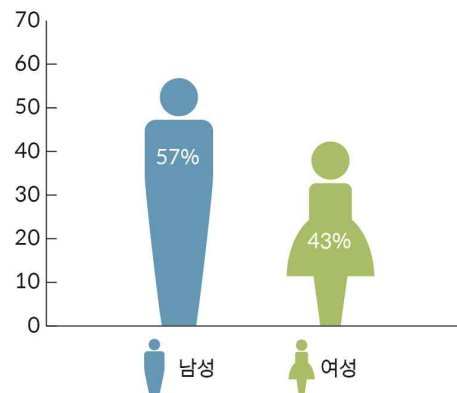
5. 조사내용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및 공간, 교류 및 협업영역, 교육영역, 창작여건 및 인식, 인구통계학적 문항,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등 7개 영역 총 47문항

1. 부산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 300여명의 존재를 확인함

〈표 1〉 성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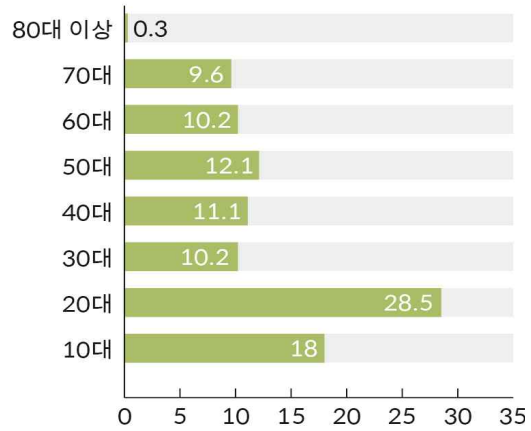
항 목	응 답	비 율
남성	184	57.0
여성	139	43.0
총계	323	100.0



2.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14개 예술영역에 걸쳐,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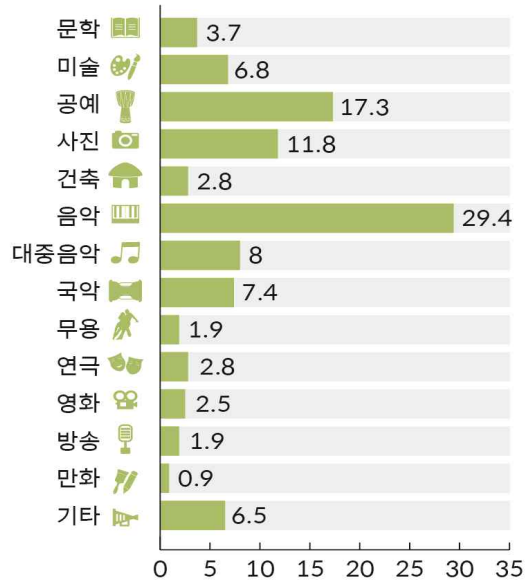
〈표 2〉 연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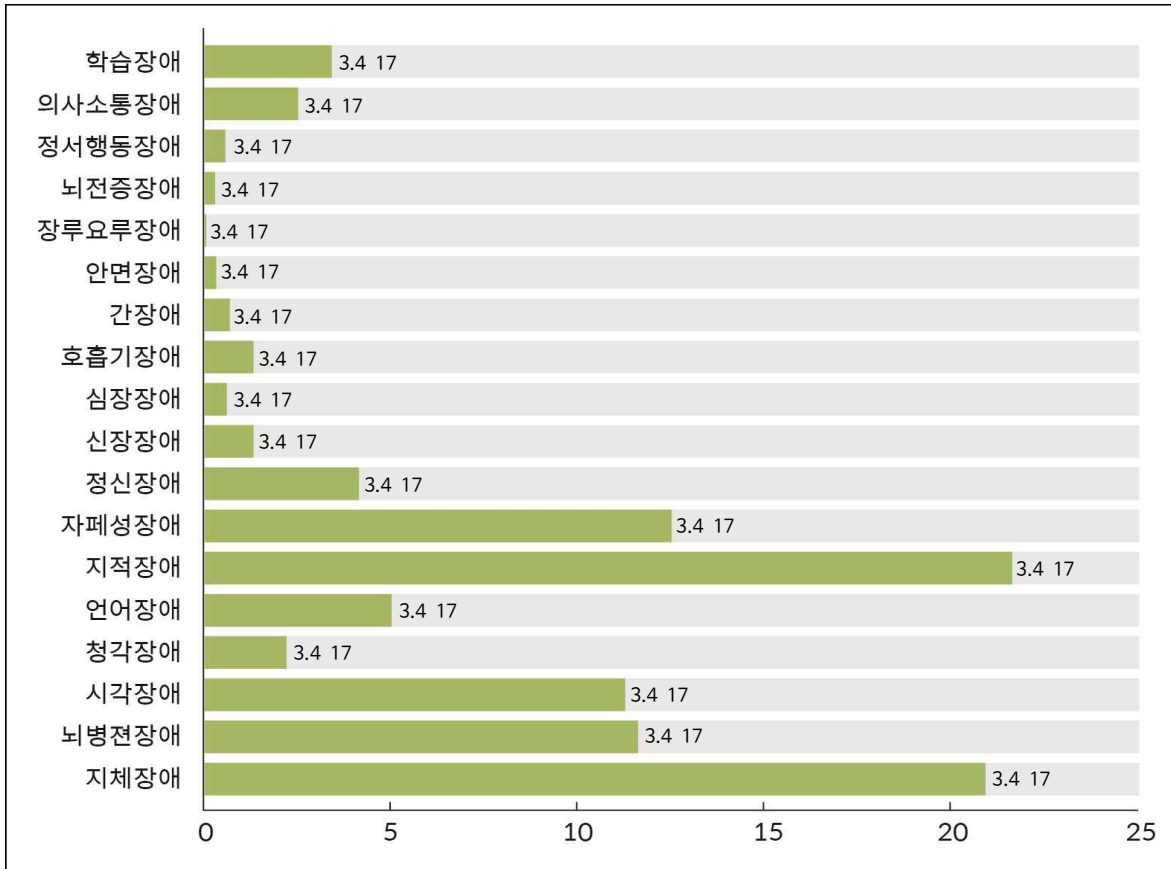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10대	56	18.0
20대	90	28.5
30대	31	10.2
40대	34	11.1
50대	37	12.1
60대	31	10.2
70대	29	9.6
80대이상	1	0.3
총계	323	100.0



〈표 3〉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분야

항목	응답	비율
문 학	12	3.7
미 술	22	6.8
공 예	56	17.3
사 진	38	11.8
건 축	9	2.8
음 악	95	29.4
대중음악	26	8.0
국 악	24	7.4
무 용	6	1.9
연 극	9	2.8
영 화	8	2.5
방 송	6	1.9
만 화	3	0.9
기 타	21	6.5
총 계	323	100.0





3.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참여, 교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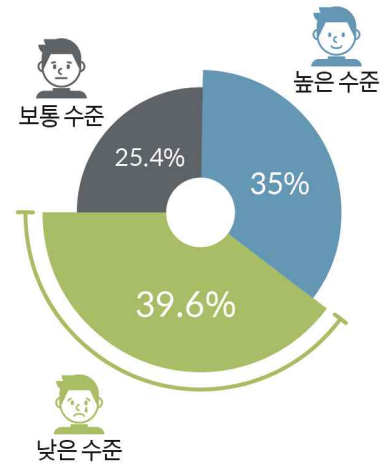
〈표 4〉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

항목	1순위(n=320)		2순위(n=308)		합계비율 (n=948)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개인의 행복을 추구	159	318	35	35	37.2
자신의 재능 발견	64	128	56	56	19.4
예술적 아름다움의 추구	22	44	34	34	8.2
사회 참여 및 교류	45	90	116	116	21.7
취업과 수입창출	15	30	28	28	6.1
장애 정도의 개선	15	30	39	39	7.3
총계	640	640	308	308	100.0

4.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자기평가가 3분의 1에 달함

〈표 5〉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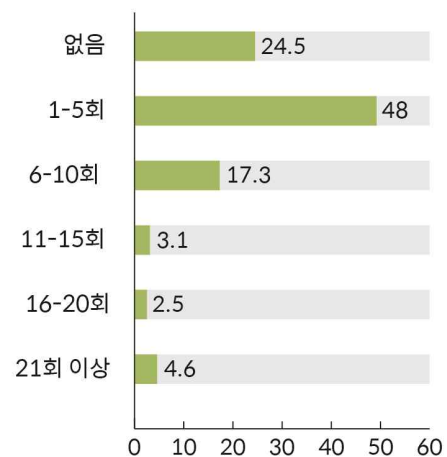
항 목	응 답	비 율
누구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22	6.8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	91	28.2
가족과 친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준	82	25.4
혼자만의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수준	64	19.8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	64	19.8
총계	323	100.0



5.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은 발표기회, 교육기회, 지원인력, 창작 공간, 공연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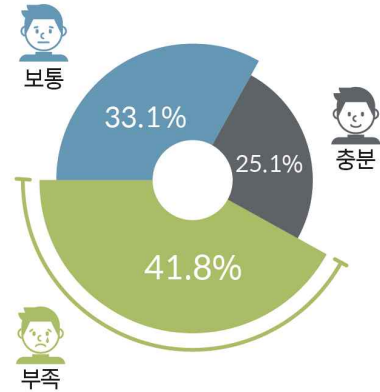
〈표 6〉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

항 목	응 답	비 율
없음	79	24.5
1-5회	155	48.0
6-10회	56	17.3
11-15회	10	3.1
16-20회	8	2.5
21회 이상	15	4.6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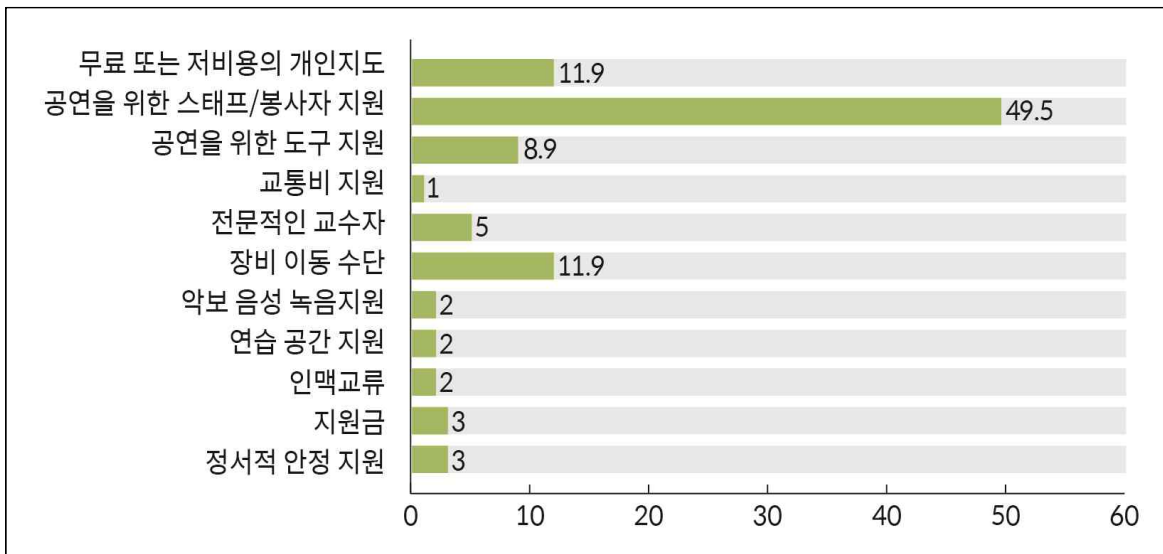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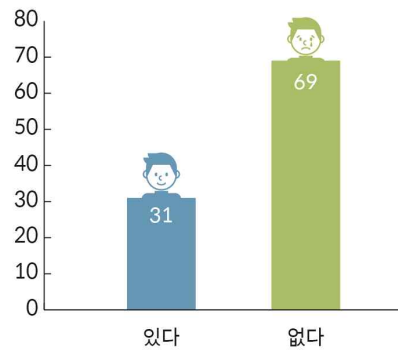
〈표 7〉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항목	응답	비율
매우 충분하다	21	6.5
충분하다	60	18.6
보통이다	107	33.1
부족하다	101	31.3
매우 부족하다	34	10.5
총계	323	100.0



〈표 8〉 창작 공간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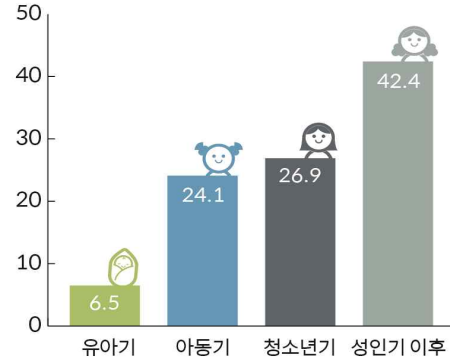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창작 공간이 있다	100	31.0
창작 공간이 없다	223	69.0
총계	323	100.0



6. 특히 교육영역에서 유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이 부족하며 공교육의 연계가 취약해 전문예술가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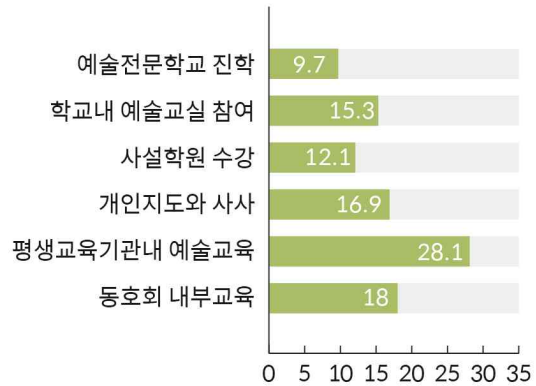
〈표 9〉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

항목	응답	비율
유아기	21	6.5
아동기	78	24.1
청소년기	87	26.9
성인기 이후	137	42.4
총계	323	100.0



〈표 10〉 재능 발견 이후 받은 교육

항목	응답	비율
예술전문학교 진학	43	9.7
학교내 예술 교실 참여	68	15.3
사설학원 수강	54	12.1
개인지도와 사사	75	16.9
평생교육기관내 예술교육	125	28.1
동호회 내부교육	80	18.0
총계	4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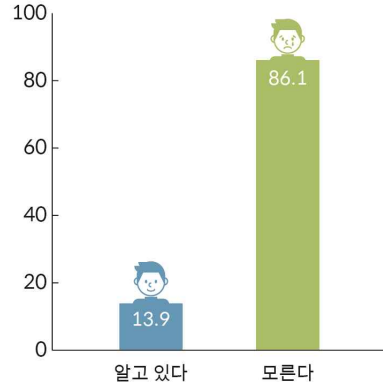
7. 예술지원정책과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이 두드러짐

〈표 11〉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

항목	1순위(n=614)		2순위(n=293)		합계비율 (n=907)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교육기관의 부재	87	174	25	25	21.9
예술 전문인력의 부재	74	148	49	49	21.7
정보 부족	74	148	65	65	23.5
시설 및 기자재 부족	38	76	66	66	15.7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34	68	88	88	17.2
총계	307	614	293	2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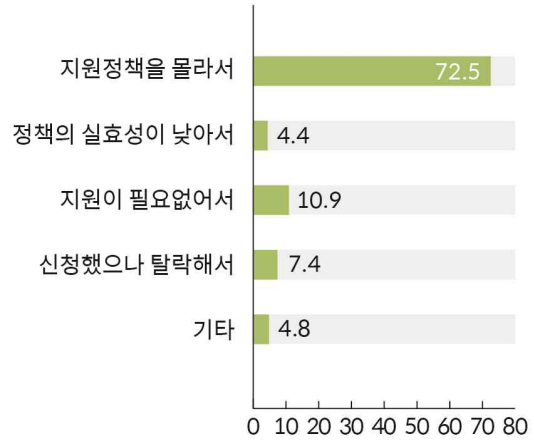
〈표 12〉 예술인패스 이해여부

항목	응답	비율
알고 있다	45	13.9
모른다	278	86.1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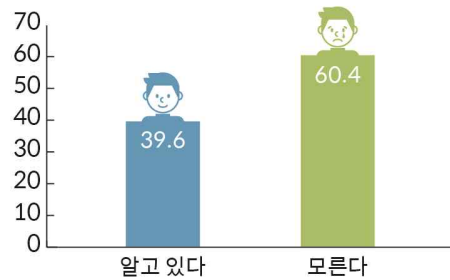
〈표 13〉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항목	응답	비율
지원정책을 몰라서	166	72.5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서	10	4.4
지원이 필요없어서	25	10.9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17	7.4
기타	11	4.8
총계	229	100.0



〈표 14〉 부산문화재단 이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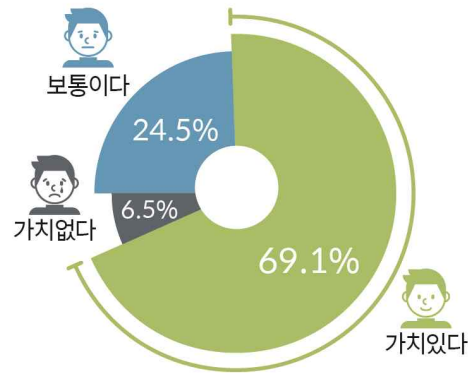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알고 있다	128	39.6
모른다	195	60.4
총계	323	100.0



8.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이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고 행복하지만 예술적,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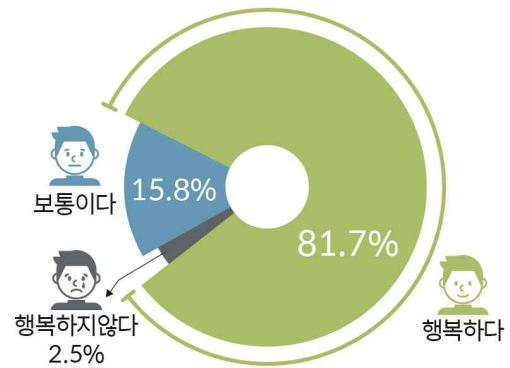
〈표 15〉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90	27.9
그렇다	133	41.2
보통이다	79	24.5
그렇지 않다	18	5.6
매우 그렇지 않다	3	0.9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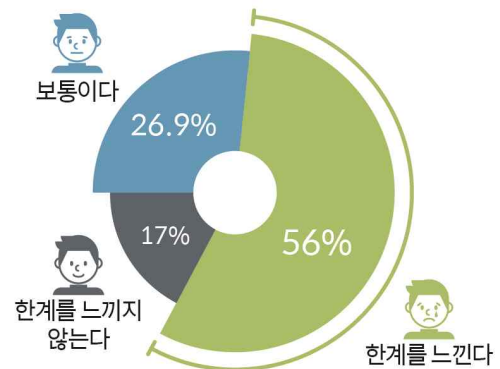
〈표 16〉 문화예술 활동이 행복하다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30	40.2
그렇다	134	41.5
보통이다	51	15.8
그렇지 않다	8	2.5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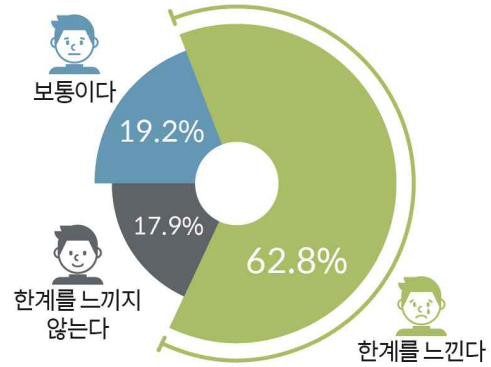
〈표 17〉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53	16.4
그렇다	128	39.6
보통이다	87	26.9
그렇지 않다	40	12.4
매우 그렇지 않다	15	4.6
총계	323	100.0



〈표 18〉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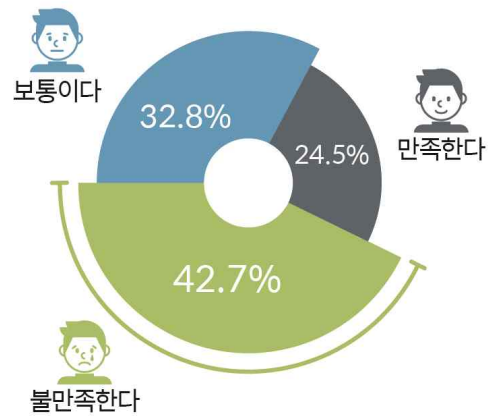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86	26.6
그렇다	117	36.2
보통이다	62	19.2
그렇지 않다	42	13.3
매우 그렇지 않다	15	4.6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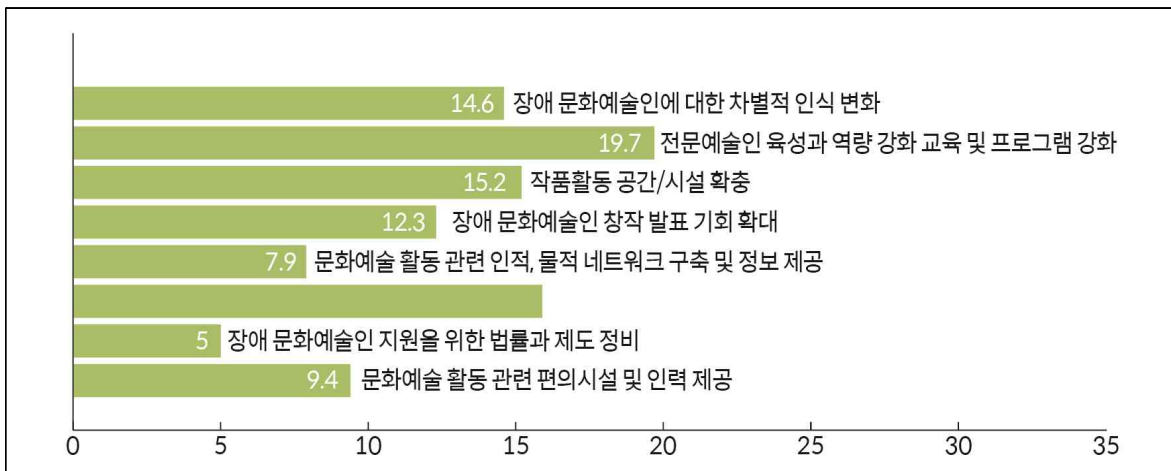
9.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불만족으로 나타남

〈표 19〉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27	8.4
그렇다	52	16.1
보통이다	106	32.8
그렇지 않다	86	26.6
매우 그렇지 않다	52	16.1
총계	323	100.0



10. 부산시에 가장 바라는 것은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11.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비장애인들의 차별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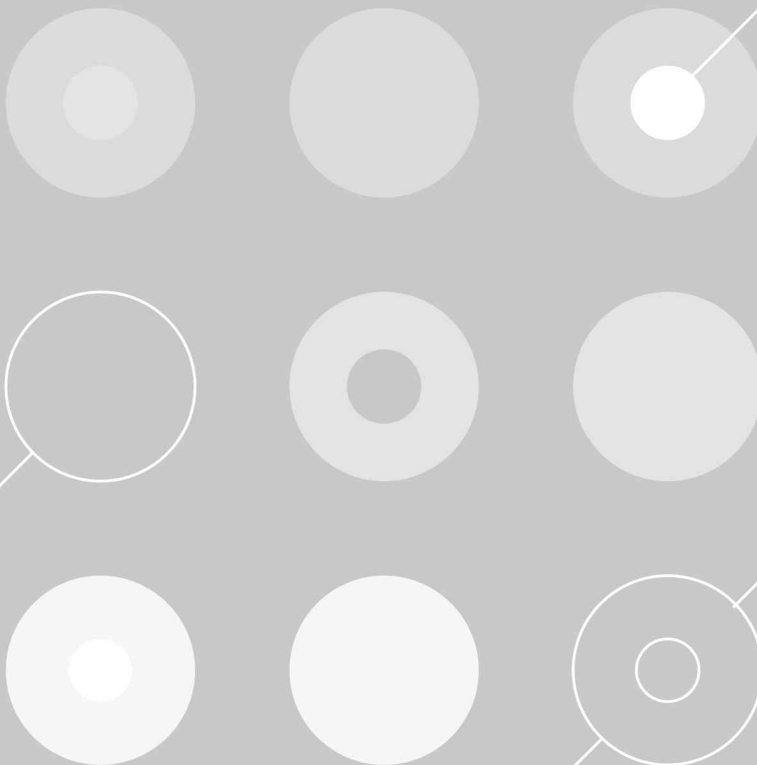
〈표 20〉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항목	1순위(n=638)		2순위(n=316)		합계비율 (n=954)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홍보 강화	57	114	14	14	13.4
사회적 인식 제고	68	136	25	25	16.9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79	158	56	56	22.4
이동편의 강화	23	46	26	26	7.5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54	108	65	65	18.1
공공쿼터제 도입	12	24	25	25	5.1
창작 활동비 지원	26	52	105	105	16.5
총계	319	638	316	316	100.0

I

연구 개요

-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 제2장 연구 범위와 방법
- 제3장 연구 수행 체계와 일정



I.

연구 개요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하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
 - 2017년 현재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인 267만명(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며 5년 단위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 경제활동, 권익증진의 6대 분야별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교육, 문화, 체육 등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중임
- 지역단위의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필요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장애 예술인의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으나,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파악은 부족한 상황임. 부산지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17만명(2017, 보건복지부)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장애예술인 실태에 대한 자료가 전무후무한 실정이며 관련 정보 전달 및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큼
- 전문 및 아마추어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필요
 - 전문 예술인 외 아마추어 예술인(시민 예술가, 생활문화 예술가 등으로 명칭 됨) 발굴 및 지원이 확장되는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비추어 다양한 영역의 장애 예술 실태 조사가 필요 함
- 장애인들의 법적, 문화적 권리보장의 차원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는 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되어있는 바, 장애인들의 법적,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지역단위의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본 조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지역 장애예술인 실태파악 및 현황조사를 그 목적으로 함. 그에 따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 최근 까지 시행된 전국단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실태 파악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활동형태, 창작여건, 정책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함. 이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 문화예술인정책 과제를 발굴함
- 둘째,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지역의 장르별 장애 예술인, 또한 전문 장애 예술인과 아마추어 장애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장애 문화예술 활동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킴
- 셋째, 학령기 장애 예술인의 발굴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마련
 - 장애 문화예술인의 개념을 확장시켜 전문 예술분야 종사자 뿐 아니라 중, 고등 학령기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모색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함
- 넷째, 장애, 비장애를 넘어선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 부산에 다양한 예술영역에서 활동하는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역에 인지시켜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제2장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 3) 조사대상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장애 문화예술인 330명
 - 부산을 기반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 문화예술인 연령과 경력 제한을 두지 않음. 단, 장애 문화예술인의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비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중, 고등 학령기에 있거나 대학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도 포함시킴

2. 연구 방법

- 설문지 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자료 및 연구 보고서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파일럿 인터뷰 15명
 - 파일럿 인터뷰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구성
 - 사전 설문조사 30명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2018년 10월 10일 ~ 11월 20일

○ 자료 코딩 및 분석: 2018년 11월 20일 ~ 12월 10일

○ 설문지 구성

-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문항,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및 공간, 교류 및 협업영역, 교육영역, 창작여건 및 인식,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등 총 7개영역 47문항으로 구성됨. 세부영역은 <표21>과 같음

<표 21> 설문지 구성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항목	세부내용	문항 수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 활동분야, 활동 형태 ○ 활동기간, 경로, 참여횟수, 목표	8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및 공간	○ 발표기회, 확대요구, 창작 공간 보유 ○ 공간이용 시 어려운 점 ○ 창작활동 시 도움 필요여부	7
교류 및 협업영역	○ 관련 단체 가입여부 ○ 관련단체 가입이유/미가입이유 ○ 장르별, 장애유무별, 국제 등 협업경험	5
교육영역	○ 예술교육 혜택 유무 ○ 예술적 재능발견 시기, 변화 등 ○ 예술교육 관련 어려움 ○ 문화예술 향유경험	6
창작여건 및 인식	○ 창작지원 경험유무, 지원규모, 지원기관 ○ 예술활동 및 생활 ○ 지역 예술정책 및 지원 ○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8
인구통계학적 문항	○ 성별, 나이, 거주지, 가족형태 ○ 학력, 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	7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 문화예술활동 투입시간(1주) ○ 직업에 투입한 시간(1주) ○ 월평균소득 ○ 고용형태 ○ 직업 및 업무내용	6
총 문항 수		47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장애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기관 1차 현황 조사
 - 조사대상의 다양성과 한정된 기간 내 안정적으로 유효 표본 수를 확보함
 - ① 예술분야 : 민예총, 예총, 각종 예술협회,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등록자 중 장애인
 - ② 복지분야 :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에 소속 이용자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 ③ 교육분야 :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대상자 중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 ④ 부산 소재 각 대학 문화예술관련 학과 장애인 졸업생 명단 등을 확보
 - ⑤ 스노우볼링(Snow Balling) 방식을 통해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예술인을 소개 받음
 - ⑥ 그 외 : 온라인을 통한 조사 홍보
- 현장 조사 시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팀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 후 진행하였음
 - 또한 대상자가 설문을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원이 직접 대상자를 대면하여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처리

-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서 ± 2.5 이내 유지
- 조사 결과의 내용별 통계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검토, 데이터코딩, 편집과정을 거침

○ 자료 분석

- 수집된 설문자료는 코딩한 후,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첫째, 각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고 둘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진행하였음

제3장 연구 수행 절차와 일정

1. 연구 수행 절차



- 연구진 구성
-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파일럿 인터뷰 (15명)
- 설문지 구성 및 수정 작업
- 사전조사 (30부)
- 장애 문화예술인이 활동 기관 현황 조사
-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온, 오프 라인 조사병행
- 배포 500부
- 회수 330부
- 최종 323부

2. 연구 일정

〈표 22〉 연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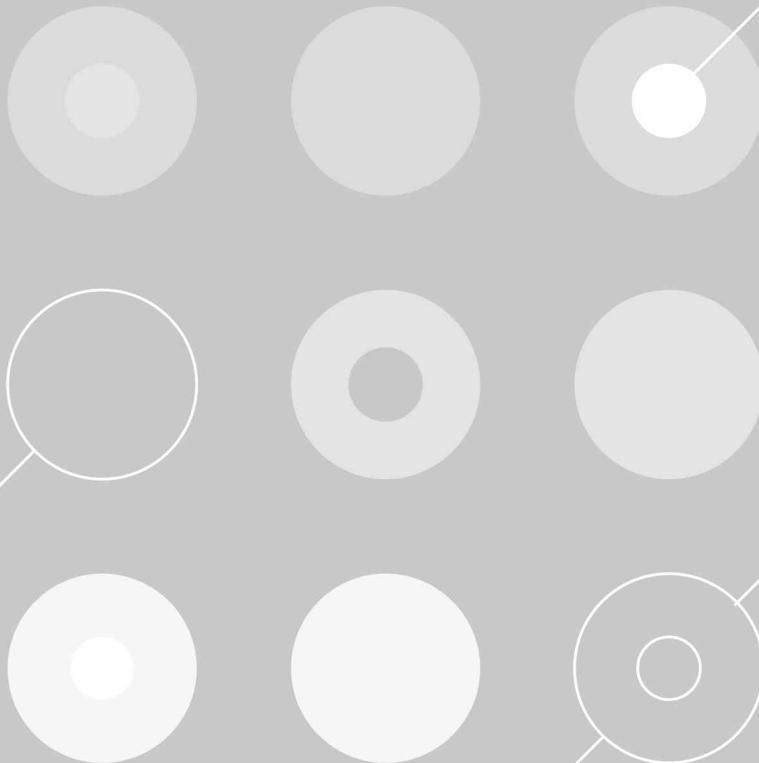
내용별 \ 월별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연구진 구성						
국내 외 선행 연구 검토						
파일럿 인터뷰						
설문지 구성 및 수정						
사전조사						
관련 기관 현황조사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온, 오프라인 설문 조사 실시						
결과분석						
결과 보고 포럼 개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Ⅱ

장애인과 문화예술 활동

제1장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정책

제2장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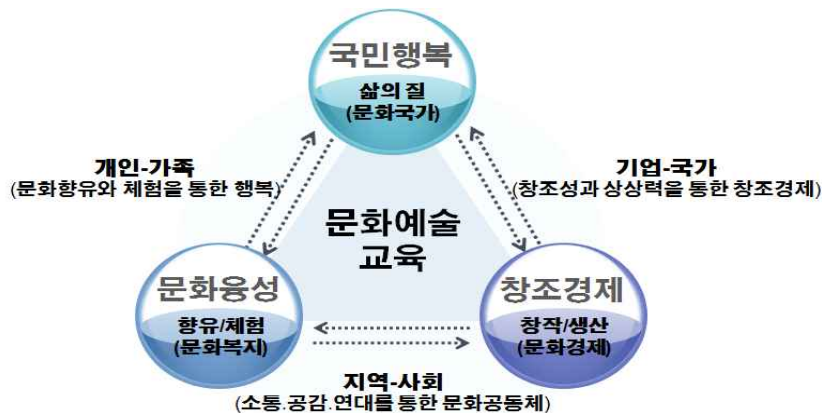
II.

장애인과 문화예술 활동

제1장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정책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미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첫째, 문화교육과 예술 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국가의 문화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
- 둘째, 학술적·이론적 접근으로 개인 및 조직 사회가 상상력과 놀이, 인공물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생산하고 축적, 공유, 이해, 소통하며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며 행위 하는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의미(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0;이유리, 2016)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교육이며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 것임



[그림 1] 문화예술교육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의 원동력은 문화예술교육의 힘”(문화체육관광부, 2014)으로의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중심요인임을 강조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위한 매개체이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의적 사고가 일상적 실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교육적 실천 영역임
- 문화예술교육이 지역과 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매개체이자 국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의미가 확장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인간 삶 영역 전반에 걸쳐 타 영역과 융합될 수 있는 장르이자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로 파악

○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목적
-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든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실시
-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대상에 대한 지원이 학교 및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됨
- 과거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시도되면서 특정한 교육영역, 장르 중심교육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남
-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이자 실천영역으로서 급부상됨
-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가역량 강화를 통해 비전과 문화를 형성해나감(양은아, 2012)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과 국가차원에서 삶의 질이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상화, 사회화, 지역화로 새로운 문화방향성으로 대두
-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학습대상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한 기구의 설립,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격 제도화 등을 추진
-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성이 개인가치와 중앙집중식 성장, 대상의 한계, 단기적 문화예술교육, 장르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2014년 시점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사회화, 자율화, 지역화, 융합화, 통합화로 변화됨
- 2014년 중장기 발전계획 내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 ‘생활 속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인해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및 거주시설 현황을 고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확대(문화체육관광부, 2014)
- 이는 변화되는 사회시스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원동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확장되고 유일하게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이기 때문
- 모든 구성원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색으로 확대 실시
- 이를 통해 미래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그림 2] 문화예술교육중장기 발전계획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성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일상화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적, 심미적 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는 인간의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체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 기관의 설립

- 기관 설립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다양한 지역과 연계되어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관의 설립 취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기관의 역할은 국가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을 구축하고 운영
- 기관의 임무는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들의 인식의 제고, 전문성강화지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하고 그 밖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시설, 예산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제반적인 역할을 마련
- 기관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하기 위함
- 하지만 집행부가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임
-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거시적인 문제해결방안은 제시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이음)

- 2014년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공사 완료함
- 2015년 11월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경쟁력확보와 장애인 문화예술 자생적 창작활동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건립
- 현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삶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에서 공간에 대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인 양성제도화

- 2012년 문화예술교육의 제도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양성 제도화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자격으로 제도화됨
- 문화예술교육은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의 다양성과 미적 경험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획 및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사는 전문인력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더욱 신뢰감 있는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으로 현장·이론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의 제고가 필요
- 지역 밀착형과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전문가 역량강화 필요
- 장애 문화예술인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

제2장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1. 선행연구

○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005년부터 장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이전 연구는 장애인 복지와 체육정책과 연관된 연구로 한정되어짐
- 대부분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과 지역차원에서 문화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현황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참여정부 이후 소외계층과 문화복지 차원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정책의 필요성 논의가 제시됨
-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논리적으로 범주화시키는 데 다소 미흡하며 장애 예술인, 장애 예술인으로 범주화하고 있음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접근은 제도 및 법, 정책적 측면,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형태, 장르별 역량강화, 공간 확보 등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임
-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에서 기본 조사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있음
- 장애 및 비장애 예술인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라 조사대상의 구분을 통해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항목의 구성이 일반적인 모델 제시는 될 수 있으나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문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연구는 2005년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서 시행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로까지 확장됨 (<표23>에서 밝히고 있음)

〈표 23〉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년도	연구명	시행처	조사항목	연구 집단
2005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사)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창작활동 경력 및 빈도, 제도마련에 필요사항 요구	별도로 규정된 연구 집단 없음
2007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사)한국장애인 복지진흥회	창작여건과 만족도, 단체 활동 및 예술창작활동 지원, 교육과 연관된 직업 활동, 문화예술정책과 인식의 확장필요	한국장애인 문인협회, 한국장애인미술 협회
2010	장애예술인 창작활동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창작여건과 만족도, 창작지원금 수혜여부, 문화예술교육관련 정책 및 인식 등	한국장애인 미술협회, 한국장애인 음악협회, 스포대문학
201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사)몸짓과 소리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투자시간, 경제활동, 수혜여부 등	별도로 규정된 연구 집단 없음
2012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여건, 교류 및 협업, 문화예술교육정책, 복지관련	장애 예술인총람 관련 민간단체 개별조사 (54단체)
2014	장애인 예술장르별 지원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장애 예술인총람 (206명), 장애예술인 전문법인 및 단체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장애·비 장애 예술인들 간 협업, 교류현황, 실태조사 조사항목의 구체화(공통·세부영역으로 구분)	별도로 규정된 연구 집단 없음

출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에서 재구성

- 이상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조사항목의 미시적 접근으로 인해 정책적 논의에 한계를 보임
- 장애 예술인에 대한 범주와 정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대부분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제고 문제해결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산지역만의 특

수성과 물리적 환경에 따른 영역별(문화예술 활동과 형태영역, 접근성과 공간영역, 교류와 협업 영역, 교육영역, 창작여건과 인식영역) 구분으로 구체적인 기초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둔

-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부산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체계를 세부적으로 밝힐 수 있는데 기반을 제공

2.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

- 기존 연구에서 장애인 예술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전병태, 2014) 또는 장애인 예술인은 “특별히 전문 문화예술인으로서 면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술 활동으로 보는 장애인 예술”(박신의, 2018)로 정의하고 있음
-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예술’ 또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본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 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기능적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보임
- 또한 조사 대상에 학령기를 포함하지 않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있음
- 이에 장애를 결핍으로 보는 시각에서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미와 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과 그에 맞는 정의가 절실히 필요함
- 나아가 그들의 언어를 찾아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가능성이 사회의 일부로 스며들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조사대상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킴. 즉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 동아리 활동 등 비 전업으로 예술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중·고등 학령기나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도 포함시킴
- 따라서 ‘장애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문화예술활동은 예술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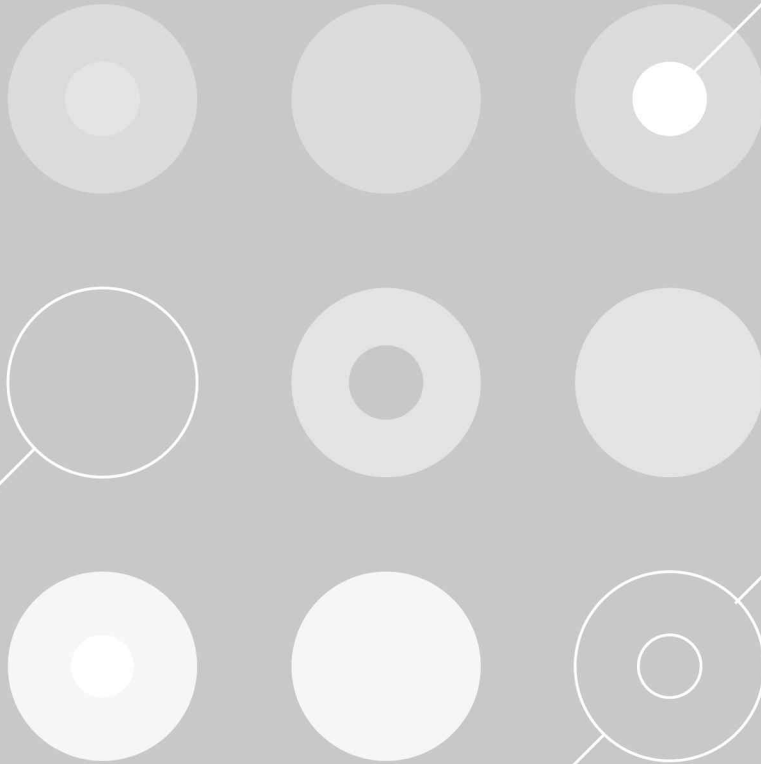
Ⅲ

장애인과 문화예술정책

제1장 국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2장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장애인과 문화예술정책

제1장 국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1. 미국

1) 미국의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 1990년 제정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장애인 차별 법률을 만들게 된 시발점이 됨
- 고용과 공공서비스, 민간제공의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에 장애인 차별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함

2)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크게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국립 예술장애인 센터(NADC: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와 매우 특별한 예술 기관(VSA: Very Special Arts)을 중심으로 추진됨
- 이 세 단체는 개별적으로 혹은 협력하며 미국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함

3)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 관련 기관들

① NEA

-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행정가 및 예술가를 후원하거나 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미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와 건강 및 인권 서비스(Health & Human services),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시행

② NADC

- 캘리포니아 주립대 엘에이 캠퍼스(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에 위치한 발달장애연구센터인 타잔센터(Tarjan center)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상담하는 기관
- 1969년 George Tarjan 박사에 의해 세워져 발달 장애인들의 대학을 이용한 사회전환 프로그램인 Pathway program과 문화예술기관, 공연장, 미술관, 축제 등의 정보나 예술관련 취업자료, 예술교육 및 펀딩, 마케팅 등의 자료 제공, 전문적인 작가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등 장애인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예술직종에 관한 전국 포럼(Statewide Forums on Careers in the A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을 주관하여 장애예술인들이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나 문화계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를 제공

③ VSA

- 1935년 국제적 비영리기관으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 다양한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및 장애아를 둔 부모를 위한 자료 제공
- 미국 및 전 세계 51개국에 있는 VSA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 함

2. 영국

1) 영국의 장애인 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제정되고 2005년에 개정
-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개별적인 요구를 2010년 통합 함.

○ 평등법(Equality Act)

- 2010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합 제정 한 법

- 장애인들이 받는 직접적인 차별에 관해서만 제지되어왔던 법적 내용들이 간접차별이나 복합차별까지 범위를 넓혀 보다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도모 함

2) 영국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평등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예술 활동이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연이나 행사에서 수화 통역을 일반화시키거나 공연에 자막을 도입하여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보임
- 오디오 가이드와 촉각 투어를 도입하여 시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임.
-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나 전시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함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 평등법에 기반 해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장애평등 계획 수립
- 모든 장애인이 예술가, 참여자, 직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예술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장애인예술전문자문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주관하며 부처 내에서 매년 장애평등계획을 수립
- 문화 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둠

3)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기관들

- 셰이프(Shape) : 1977년 국립 장애인 예술 컬렉션 및 기록보관소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언리미티드(Unlimited): 영국을 대표하는 장애 예술인 단체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예술 프로그램. 2년마다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을 기획. 언리미티드 임팩트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의 예술 참여를 지원
- 1980년 설립된 장애인 중심의 극단인 극장 그라이아이(Graeae), 1980년대 중반 설립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예술가의 취업

과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다다(DaDa: Disability & Deaf Arts),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하트 앤 소울(Heart 'n' Soul), 대표적 장애인 댄스 기관 캔두코(Candoco)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

3. 호주

1) 호주의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2년 제정되어 장애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막고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며 그 권리보장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 짐

2) 호주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호주 정부산하 기관 중 호주 인권 위원회에서는 장애 실행계획을 3년 단위로 제시하여 장애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함
-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과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매년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호주 국립 장애 예술인상을 수여

3)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 관련 기관들

- 국립 문화연구소: 호주 전쟁기념관, 호주 국립 전시관을 비롯한 호주 전역에 위치한 곳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4. 독일

1)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GG: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 총 4장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장애인들의 차별을 법적으로 제지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독일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장애인 평등법을 토대로 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며,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꾸준한 지원과 관리를 함

3)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 관련 기관들

○ 베를린클루지온(Berlinklusion)

-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와 큐레이터, 미술 교육자 등이 만든 단체. 예술가와 대중이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인 박물관, 갤러리, 기타 예술 조직 및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워크숍 및 창의적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통합적 예술을 위해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

○ 유르겐 라텍(Jürgen Ladek)

- 장애 예술가들의 교육을 돕고 있는 기관으로 예술교육 전문가와 어시스트 강사가 함께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

○ 그렌젠로스 클투어 (Grenzenlos Kultur)

-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

○ 람바잠바(Ramba Zamba)

- 1990년도 만들어진 장애 연극인 전용 극장
-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거나 학문과 연구를 위한 문화진흥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운영

5. 일본

1) 일본의 장애인 법

-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시책을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중점 시책을 시행 함
- 2010년 초부터 장애인의 정의를 재검토해 기존 의학적 모델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모델로 전환함

2)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장애인 정상화 7개년 계획

- 1995년 장애인 참여 예술제와 전시회 지원의 내용

○ 자치구장애인계획책정지침

- 1995년 지방 공공단체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방침을 검토하고 장애인 예술 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모.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 22조

- 2001년 시행되어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이 강조되어 다양한 장애인 예술 활동이 전개됨
- 2008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공동 개최 하에 장애인 아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을 함께함

3)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 관련 기관들

○ 에이블 아트 재팬

- 구 일본 장애자 예술 문화협회로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 단체
- 1995년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중심의 창작, 관람활동을 촉진하여 창작자와 관람자가 함께 교류하며 지역단위로 활동을 전개시킴

○ 에이블 아트 컴퍼니

- 2007년부터 장애인의 예술활동의 일상화와 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작품을 상품화시킴
- 장애인을 아티스트 등록 받아 작품을 공개하고 저작권 사용의 청구를 돕고 각종 강연이나 포럼 등을 운영하기도 함. 장애 예술가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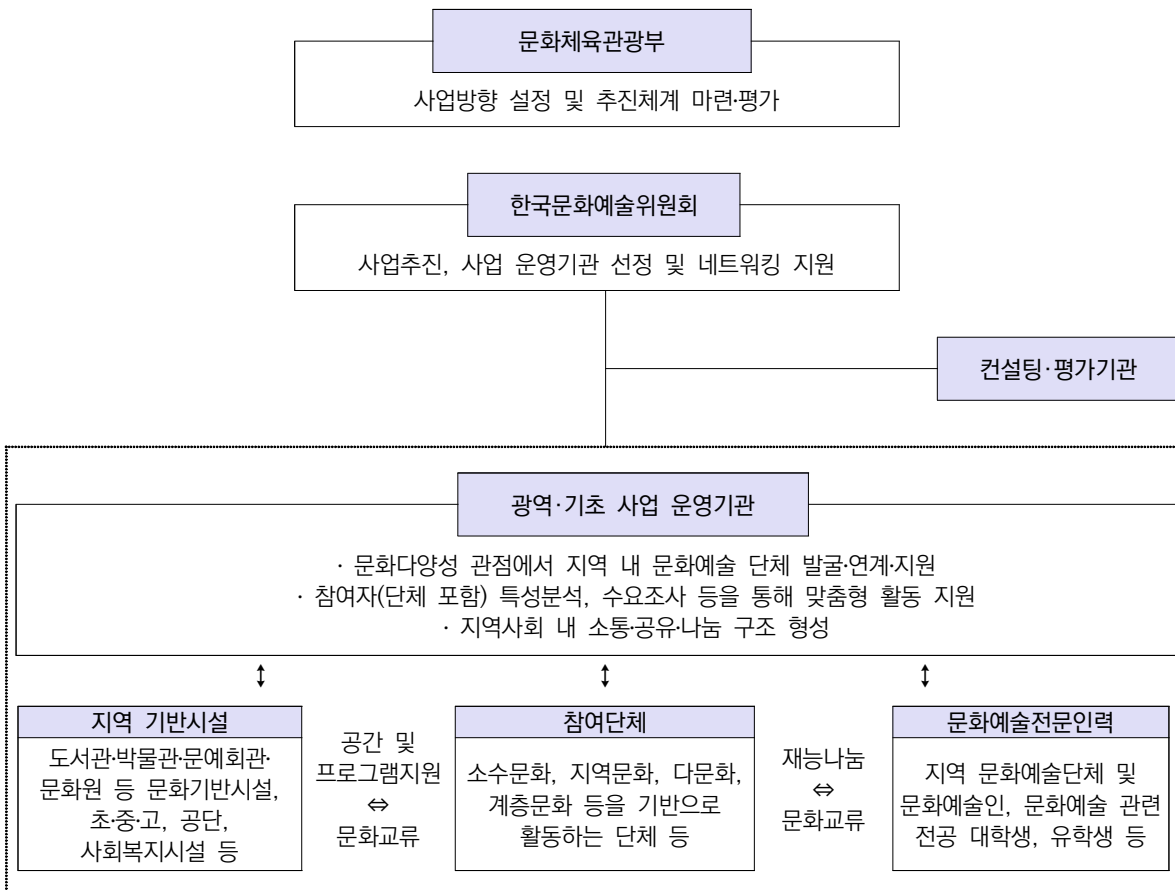
6. 소결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의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 차별적 대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보호

-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각 나라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발전시킴
- 미국과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창작자와 관람자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킴
- 장애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창작지원, 전시 및 공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혹은 학교나 민간시설 등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유기적으로 도움을 줌

제2장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과), 장애인문화원(예술정책과)과 보건복지부, 지역문화재단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문화원에서는 몇몇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
- 문화예술위원회의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전체 예산 1.5%에 불과한 것으로(방귀희, 2016) 보고되어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시도는 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문화예술교육관련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으로 광역·기초 문화재단, 공공기관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그림 3]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추진계획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1.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소속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향수 프로그램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을 문화주체로 회복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확보하는 것임
- 2010년과 2011년 7개의 분야에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장애인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이 삭제되었고, 2013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만 시행하고 있음. 특히 2014년까지 시행하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지원’이 2015년 삭제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각 분야에 적극적 문화생산자로서의 예술적 역량과 성장 잠재력은 외면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2015년 11월부터 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되었음.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 24>과 같음

<표 24>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개요(2010년~2017년)

시행 년도	지원 분야
2010	①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④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⑤ 장애인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지원 ⑦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2011	①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④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⑤ 장애인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지원 ⑦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2012	①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④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2013	①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②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014	①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④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⑦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⑧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 지원
2015	①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④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⑦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⑧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 지원
2016	①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④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⑦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 지원
2017	①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지원 ②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④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 6개 지역재단(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3년 12개, 2014년 17개, 2015년 23개에서 2018년 28개로 참여 기관이 늘어났음. 지원금액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각 기관 당 최소 5천 만원에서 최대 1억 5천 만원 정도임
- 지원대상은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지역 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참여단체(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등), 문화예술전문인력(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관련 전공 대학생, 유학생 등)을 지원함

2.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소속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장애인복지관협회(사업주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예술강사가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특정 예술 장르와 기능 습득, 나아가 일상과 삶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향유 기회 높여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 이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사각지대 없이 국민 모두 다양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감 찾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함
- 지원분야는 총 6개 분야(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이며, 예산은 2018년 65억에서 2019년 88억으로 증가함을 보여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보급됨
- 2008년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가 운영되어 수혜자 수는 학령기 인구 절반 가까이(46.45%)가 문화예술교육을 받음. 2009년에는 사진, 디자인, 전통공예 분야가 더해져 8개 분야로 확장됨(이필상, 2010)
-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확대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08)
- 그러나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시도 예산 부족과 편중된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특히 특수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영역과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김경, 201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담 교실 설치, 특수교사의 요구와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전문 강사 확대 보급, 교사 연수,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3. 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으로는 창작 활성화 지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는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소속인 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07년부터 ‘함께누리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역량을 강화함에 있음
- 사업내용은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장애인 문화예술 공모 및 지원, 운영비, 장애인 공연 공간 확충방안 연구)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전통예술공

연, 클래식공연, 대중예술공연)에 있음. 지원금액은 2018년 65억 8천만원에서 2019년 88억 2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4.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오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등을 매년 개최하고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실 및 행사 개최,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예산상의 문제로 미비한 상태임

5. 시도별 장애 문화예술사업 현황

1) 서울

- 서울문화재단
 -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다원 등의 분야에서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과 함께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등의 예술가 지원, 창작 작업실 및 연습실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과 청년예술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 유망 장애 예술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
 - : 서울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할 장애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를 자격으로 지원규모 500만원-1500만원의 공모 사업 추진

- 잠실 창작 스튜디오
 - : 2007년 문을 연 국내 유일 장애 예술가 전용 창작공간
 - : 2019년 현재 10기 예술가 10명이 입주 해 창작 작업을 펼침
- 프로젝트 A
 - : 2013년부터 조아제약의 후원을 받아 멘토-멘티 결연으로 장애아동의 창작 활동을 지원 하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매년 진행.

○ 이음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건립.
- 현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위탁운영
- 서울 대학로에 스튜디오와 전시실, 커뮤니티 룸 등을 갖춘 이음아트홀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진행

○ 하트하트 재단

- 문화복지 네트워크 사업 및 문화예술 인재육성 사업을 펼침
- 14세-30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활동 지원
-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장애와 음악적 수준에 최적화된 음악 교육 제공

2) 인천

○ 인천문화재단

-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인 나눔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임 워크숍 진행
- 나눔방문은 자발적 문화예술향유가 어려운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의 단체를 찾아가 문화예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 2018년 20차례의 움직임 워크숍에서 인천 27개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와 학생 280여명이 참가 함.

- 2018년 장애학생들과 전문 무용단이 함께 한 공연 ‘오해피데이’를 인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개최

3)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 2016년 드림 앙상블, 디아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원 지원
- 201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에 3억원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 30억 3000만원 규모의 제주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사업 중 2019년 2월 2차 공모에서 장애인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내용을 신설
- 창작 활동에 드는 직접 경비 및 한시적 전담 인력비 및 교통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함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 2017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주관
- 2017, 2018년 전국장애인 연극제 개최
- 2018년 창작뮤지컬 바리스타즈 공연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다만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이 외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7년 10월 부산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연구에서 평생교육, 여가문화생활 분야에서 문화·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실태와 세부계획을 문화예술정책이 아닌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보고서의 내용은 여가생활과 관람인으로서의 예술행사 관람 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예술행사 관람 횟수 실태도 전국실태나 타광역시 실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됨
- 세부계획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문화컨텐츠 영역에서의 접근 및 권리보장 필요, 물리적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연구보고서는 부산시의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초점을 둔 내용의 보고서로 문화예술정책적 함의를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

IV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장 일반적 현황

제2장 문화예술활동과 형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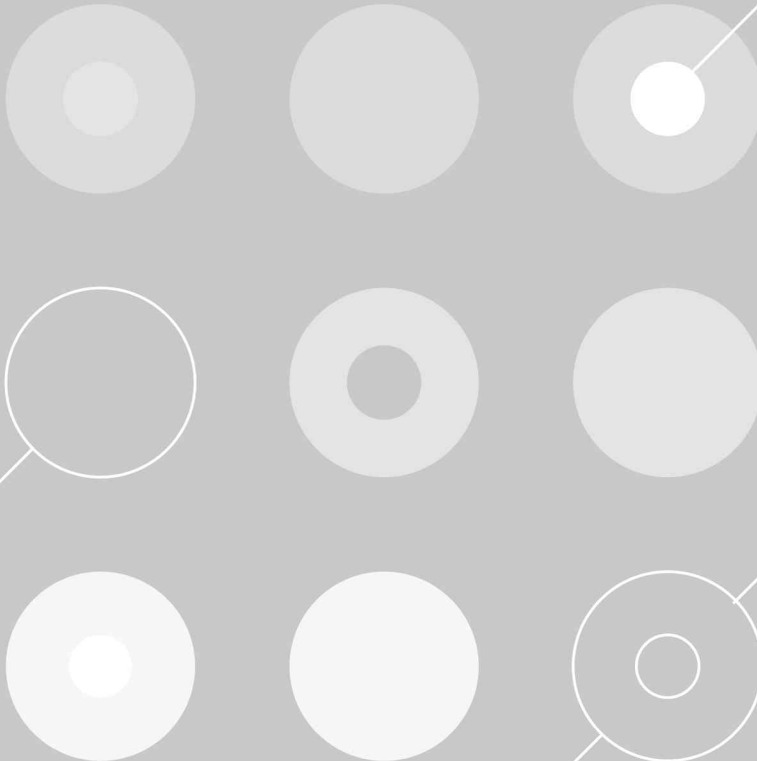
제3장 문화예술활동 접근성과 공간 영역

제4장 교류와 협업 영역

제5장 교육 영역

제6장 창작 여건과 인식 영역

제7장 문화예술 활동 관련 경제 활동



IV.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장 일반적 현황

-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 323명을 대상으로 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25〉 설문지 수집 및 사용현황

총 배부	회수	부정확	최종사용
500	330	7	323

〈표 26〉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3)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율 (%)
성별	남성	184	57.0
	여성	139	43.0
연령	10대	56	18.0
	20대	90	28.5
	30대	31	10.2
	40대	34	11.1
	50대	37	12.1
	60대	31	10.2
	70대	29	9.6
	80대이상	1	0.3
학력	무학	9	3.0
	초등학교 졸업	27	8.9
	중학교 졸업	36	11.9
	고등학교 졸업	97	32.1
	(전문)대학재학/중퇴	55	18.2
	(전문)대학교 졸업	46	15.2
	대학원수료	7	2.3
	석사/박사	5	1.7
	특수학교전공과졸업	20	6.6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율 (%)
거주형태	독립(1인가구)	56	18.3
	가족과 동거	239	78.1
	친지, 지인과 동거	6	2.0
	장애인 시설거주	5	1.6
거주지	강서구	3	0.9
	금정구	38	11.8
	동래구	34	10.5
	부산진구	20	6.2
	북구	23	7.1
	사상구	18	5.6
	사하구	24	7.4
	남구	33	10.2
	중구	5	1.5
	동구	7	2.2
	영도구	25	7.7
	해운대구	42	13.0
	수영구	17	5.3
	서구	12	3.7
	연제구	15	4.6
	기장군	7	2.2
장애 발생 유형	선천	165	52.9
	후천	147	47.1
장애 유형	지체장애	67	20.9
	뇌병변장애	37	11.6
	시각장애	36	11.3
	청각장애	7	2.2
	언어장애	16	5.0
	지적장애	69	21.6
	자폐성장애	40	12.5
	정신장애	13	4.1
	신장장애	4	1.3
	심장장애	2	0.6
	호흡기장애	4	1.3
	간장애	2	0.6
	안면장애	1	0.3
	장루요루장애	0	0.0
	뇌전증장애	1	0.3
	정서행동장애	2	0.6
	의사소통장애	8	2.5
학습장애	1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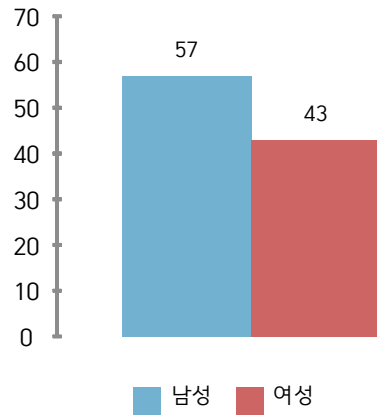
※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는 특수교육법 기준이며 나머지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기준임

○ 성별

성별은 '남성' 57.0%(184명), '여성' 43.0%(139명)으로 나타났음

〈표 27〉 성별

항목	응답	비율
남성	184	57.0
여성	139	43.0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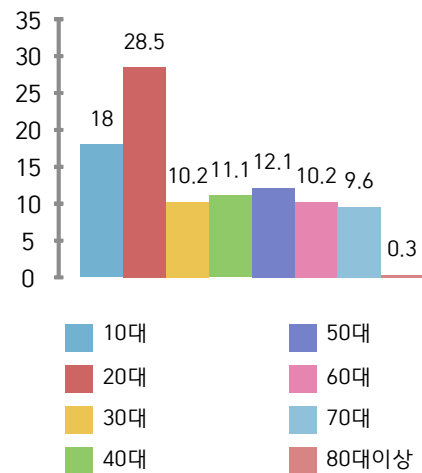


○ 연령

연령은 '20대' 28.5%(90명), '10대' 18.0%(56명), '50대' 12.1%(37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28〉 연령

항목	응답	비율
10대	56	18.0
20대	90	28.5
30대	31	10.2
40대	34	11.1
50대	37	12.1
60대	31	10.2
70대	29	9.6
80대이상	1	0.3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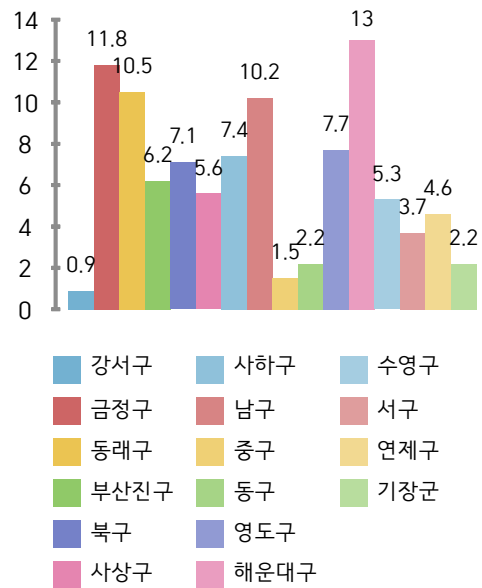


○ 거주지

거주지는 ‘해운대구’ 13.0%(42명), ‘금정구’ 11.8%(38명), ‘동래구’ 10.5%(34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29〉 거주지

항목	응답	비율
강서구	3	0.9
금정구	38	11.8
동래구	34	10.5
부산진구	20	6.2
북구	23	7.1
사상구	18	5.6
사하구	24	7.4
남구	33	10.2
중구	5	1.5
동구	7	2.2
영도구	25	7.7
해운대구	42	13.0
수영구	17	5.3
서구	12	3.7
연제구	15	4.6
기장군	7	2.2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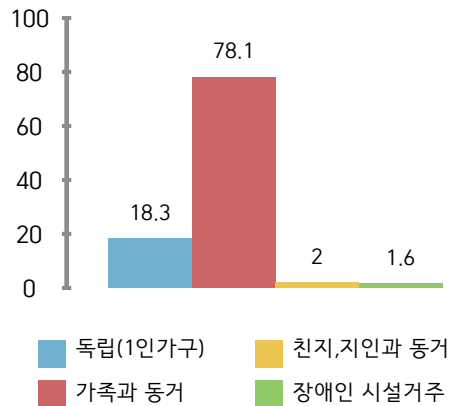


○ 거주형태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78.1%(239명), ‘독립(1인가구)’ 18.3%(56명)으로 나타났음

〈표 30〉 거주형태

항목	응답	비율
독립(1인가구)	56	18.3
가족과 동거	239	78.1
친지, 지인과 동거	6	2.0
장애인 시설거주	5	1.6
총계	3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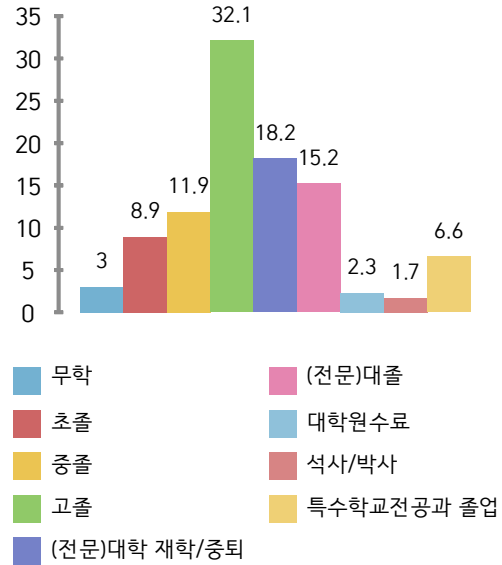


○ 학력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2.1%(97명), ‘(전문)대학교 재학/중퇴’ 18.2%(5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 학력

항목	응답	비율
무학	9	3.0
초등학교 졸업	27	8.9
중학교 졸업	36	11.9
고등학교 졸업	97	32.1
(전문)대학교 재학/중퇴	55	18.2
(전문)대학교 졸업	46	15.2
대학원수료	7	2.3
석사/박사	5	1.7
특수학교전공과 졸업	20	6.6
총계	323	100.0



○ 장애발생

장애발생 ‘선천적 장애’ 52.9%(165명), ‘후천적 장애’ 47.1%(147명)으로 나타났음

〈표 32〉 장애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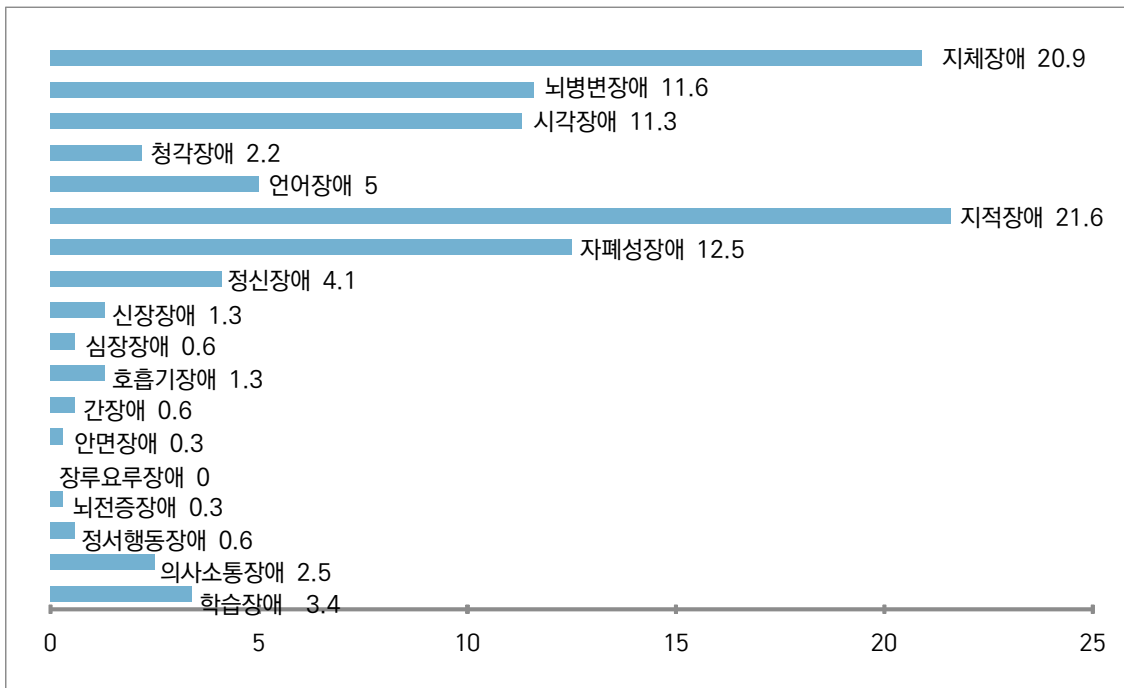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선천	165	52.9
후천	147	47.1
총계	323	100.0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21.6%(69명), ‘지체장애’ 20.9%(67명), ‘자폐성장애’ 12.5%(4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 장애유형

항목	응답	비율
지체장애	67	20.9
뇌병변장애	37	11.6
시각장애	36	11.3
청각장애	7	2.2
언어장애	16	5.0
지적장애	69	21.6
자폐성장애	40	12.5
정신장애	13	4.1
신장장애	4	1.3
심장장애	2	0.6
호흡기장애	4	1.3
간장애	2	0.6
안면장애	1	0.3
장루요루장애	0	0.0
뇌전증장애	1	0.3
정서행동장애	2	0.6
의사소통장애	8	2.5
학습장애	11	3.4
총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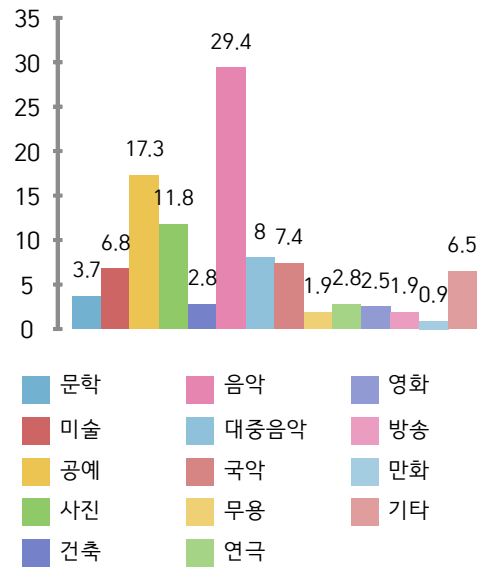
제2장 문화예술 활동과 형태 영역

○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 분야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29.4%(95명), ‘공예’ 17.3%(56명), ‘사진’ 11.8%(38명)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로는 ‘서예’가 15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4〉 활동 중인 주된 문화예술분야

항목	응답	비율
문학	12	3.7
미술	22	6.8
공예	56	17.3
사진	38	11.8
건축	9	2.8
음악	95	29.4
대중음악	26	8.0
국악	24	7.4
무용	6	1.9
연극	9	2.8
영화	8	2.5
방송	6	1.9
만화	3	0.9
기타	21	6.5
총계	323	100.0



○ 문화예술 활동 기간

문화예술 활동 기간은 ‘1-5년 미만’이 56.0%(181명), ‘5-10년 미만’이 25.4%(82명) 순으로 나타났음. ‘30년 이상’ 활동기간을 가진 응답자는 3.4%(11명)로 나타났음

〈표 35〉 총 활동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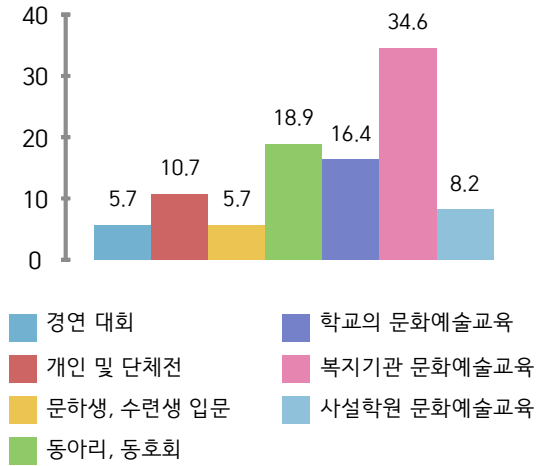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1-5년 미만	181	56.0
5-10년 미만	82	25.4
10-20년 미만	38	11.8
20-30년 미만	11	3.4
30년 이상	11	3.4
총계	323	100.0

○ 문화예술 활동 입문 계기

문화예술 활동 입문 계기는 ‘복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이 34.6%(110명),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이 18.9%(6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6〉 문화예술 활동 입문 계기

항목	응답	비율
경연 대회	18	5.7
개인 및 단체전	34	10.7
문하생 또는 수련생 입문	18	5.7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	60	18.9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52	16.4
복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110	34.6
사설 학원의 문화예술교육	26	8.2
총계	3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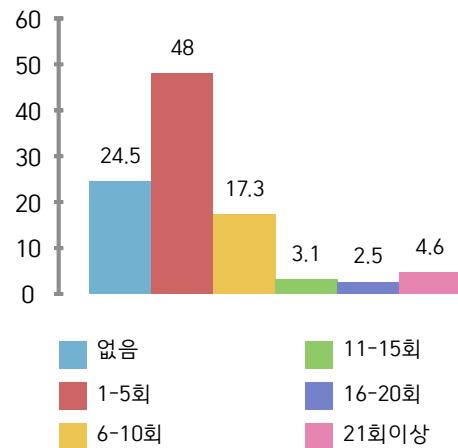


○ 지난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

지난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는 ‘1-5회’가 48.0%(155명), ‘발표 횟수 없음’이 24.5%(79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7〉 3년간 문화예술 활동 발표 횟수

항목	응답	비율
없음	79	24.5
1-5회	155	48.0
6-10회	56	17.3
11-15회	10	3.1
16-20회	8	2.5
21회 이상	15	4.6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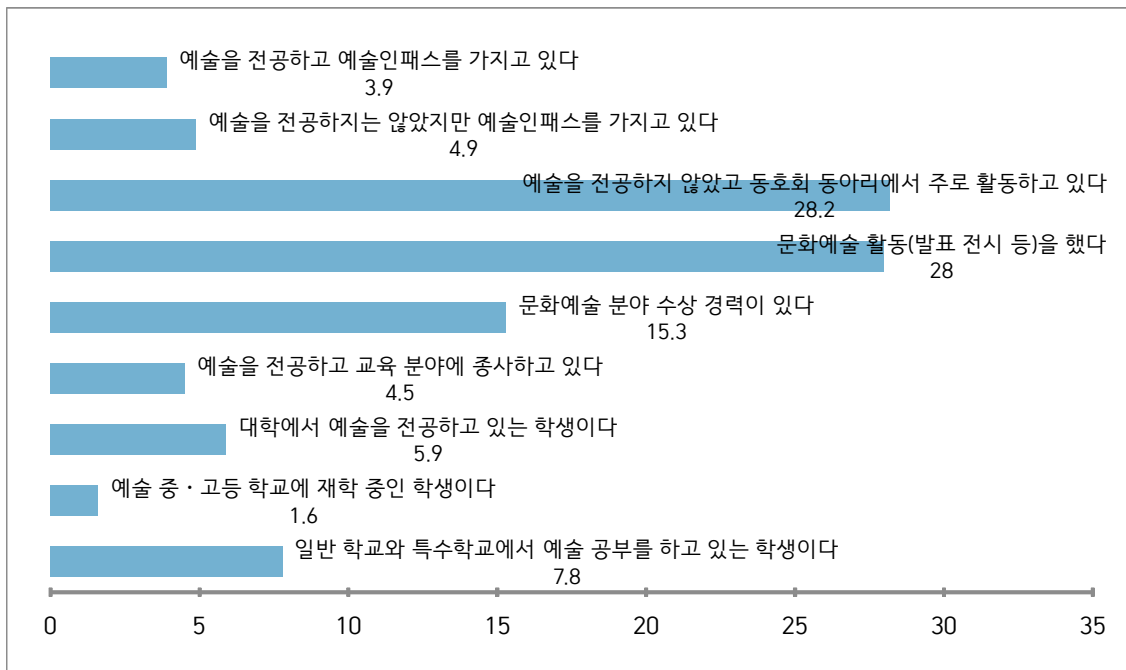


○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동호회, 동아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28.2%(144명), ‘문화예술 활동(발표, 전시 등)을 했다’ 28.0%(138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8〉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

항목	응답	비율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인패스를 가지고 있다	20	3.9
예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인패스를 가지고 있다	25	4.9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동호회, 동아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144	28.2
문화예술 활동(발표, 전시 등)을 했다	143	28.0
문화예술 분야 수상 경력이 있다	78	15.3
예술을 전공하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3	4.5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30	5.9
예술 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8	1.6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예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40	7.8
총계	511	100.0



○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를 2순위까지 응답한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개인의 행복 추구’가 37.2%, ‘사회 참여 및 교류’ 2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39〉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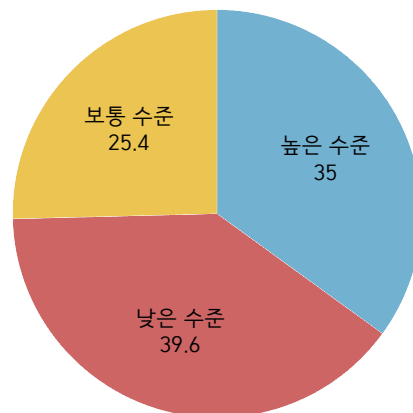
항목	1순위(n=320)		2순위(n=308)		합계비율 (n=948)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개인의 행복을 추구	159	318	35	35	37.2
자신의 재능 발견	64	128	56	56	19.4
예술적 아름다움의 추구	22	44	34	34	8.2
사회 참여 및 교류	45	90	116	116	21.7
취업과 수입창출	15	30	28	28	6.1
장애 정도의 개선	15	30	39	39	7.3
총계	640	640	308	308	100.0

○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는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 28.2%(91명), ‘가족과 친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준’ 25.4%(82명) 순으로 나타났음. ‘낮은 수준의 자기평가’ 39.6%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기평가’ 35.0%로 낮게 나타났음

〈표 40〉 자신의 예술적 능력 정도 평가

항목	응답	비율
누구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22	6.8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	91	28.2
가족과 친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준	82	25.4
혼자만의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수준	64	19.8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	64	19.8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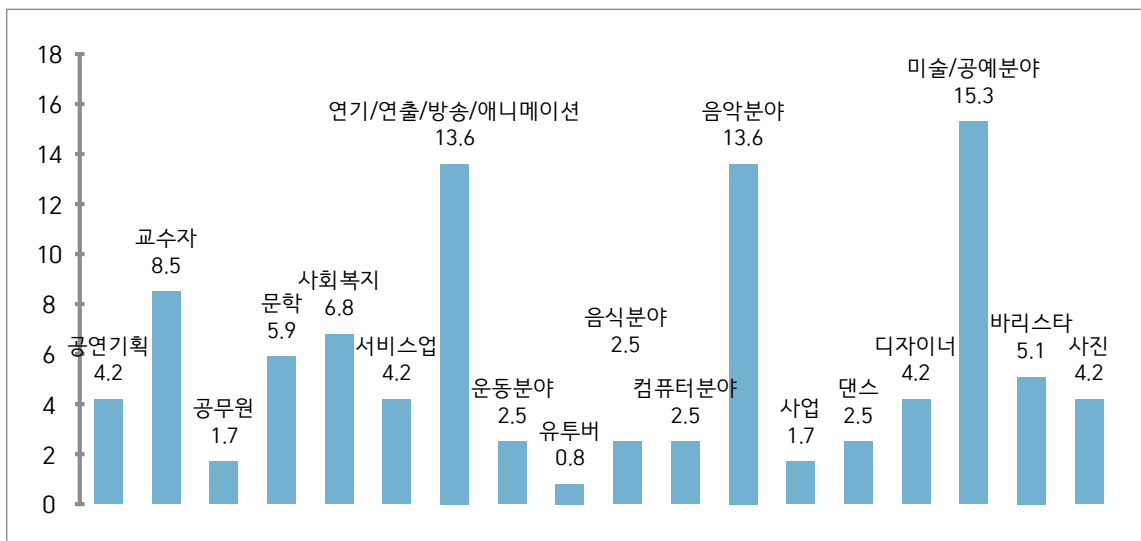


○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업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은 ‘미술/공예분야’가 15.3%(18명), ‘음악분야’와 ‘연기/연출/방송/애니메이션’이 각각 13.6%(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업

항목	응답	비율
공연기획	5	4.2
교수자	10	8.5
공무원	2	1.7
문학	7	5.9
사회복지	8	6.8
서비스업	5	4.2
연기/연출/방송/애니메이션	16	13.6
운동분야	3	2.5
유튜버	1	0.8
음식분야	3	2.5
컴퓨터	3	2.5
음악분야	16	13.6
사업	2	1.7
댄스	3	2.5
디자이너	5	4.2
미술/공예분야	18	15.3
바리스타	6	5.1
사진	5	4.2
총계	1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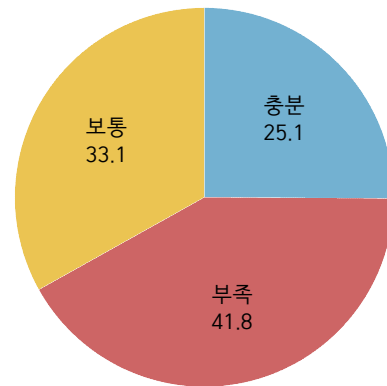
제3장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과 공간 영역

○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는 ‘보통이다’ 33.1%(107명), ‘부족하다’ 31.3%(101명)으로 전반적으로 발표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항목	응답	비율
매우 충분하다	21	6.5
충분하다	60	18.6
보통이다	107	33.1
부족하다	101	31.3
매우 부족하다	34	10.5
총계	323	100.0



○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에 대한 장애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에 대한 전문문화예술인, 생활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화예술 발표기회 충분여부	전문 문화 예술인	60	3.41	1.07	3.13	3.69
	생활문화 예술인	180	3.09	1.07	2.93	3.25
	잠재적 문화 예술인	71	3.28	1.01	3.04	3.52
	합계	311	3.19	1.06	3.08	3.31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문화예술 발표기회 충분여부	집단-간	5.29	2	2.64	2.34	.098
	집단-내	348.34	308	1.13		
	합계	353.64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II)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화예술 발표기회 충분여부	전문문화 예술인	생활문화예술인	.32	.15	.12	-.067	.71
		잠재적문화예술인	.13	.18	.77	-.32	.59
	생활문화 예술인	전문문화예술인	-.32	.15	.12	-.71	.06
		잠재적문화예술인	-.18	.14	.45	-.55	.17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문화예술인	-.13	.18	.77	-.59	.32
		생활문화예술인	.18	.14	.45	-.17	.55

○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를 2순위까지 응답한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22.4%, ‘연습공간과 창작공간의 확보’ 18.1%, ‘사회적 인식 제고’ 16.9% 순으로 나타났음

〈표 43〉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 유형 비교

항목	1순위(n=638)		2순위(n=316)		합계비율 (n=954)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홍보 강화	57	114	14	14	13.4
사회적 인식 제고	68	136	25	25	16.9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79	158	56	56	22.4
이동편의 강화	23	46	26	26	7.5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54	108	65	65	18.1
공공쿼터제 도입	12	24	25	25	5.1
창작 활동비 지원	26	52	105	105	16.5
총계	319	638	316	316	100.0

○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1순위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 세 집단 모두 ‘사회적 인식 제고’,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강조하였음. 2순위에서는 ‘창작활동비 지원’,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

의 확보’,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강조하였음

〈표 44〉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1순위 집단비교

1순위	문화예술인 유형						전체 (명, %)	
	전문 문화예술인 (명, %)		생활문화 문화예술인 (명, %)		잠재적 문화예술인 (명, %)			
홍보 강화	9	2.9%	32	10.3%	9	2.9%	50	16.1%
사회적 인식 제고	17	5.5%	39	13.2%	11	3.9%	67	22.5%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16	5.1%	42	13.5%	20	6.4%	78	25.1%
이동편의 강화	2	0.6%	14	4.5%	6	1.9%	22	7.1%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10	3.2%	26	8.4%	17	5.5%	53	17.0%
공공쿼터제 도입	3	1.0%	7	2.3%	2	0.6%	12	3.9%
창작 활동비 지원	3	1.0%	18	5.8%	5	1.6%	26	8.4%
전체	60	19.3%	180	57.9%	71	22.8%	311	100.0%

〈표 45〉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요구 2순위 집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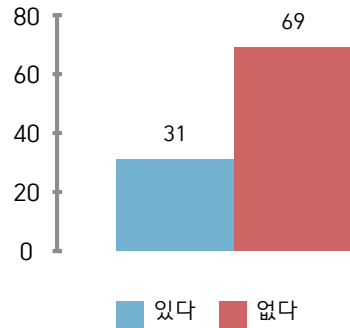
2순위	문화예술인 유형						전체 (명, %)	
	전문 문화예술인 (명, %)		생활문화 문화예술인 (명, %)		잠재적 문화예술인 (명, %)			
홍보 강화	1	.3%	10	3.2%	3	1.0%	14	4.5%
사회적 인식 제고	3	1.0%	16	5.1%	8	2.6%	27	8.7%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8	2.6%	36	11.6%	9	2.9%	53	17.0%
이동편의 강화	7	2.3%	9	2.9%	7	2.3%	23	7.4%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12	3.9%	35	11.3%	18	5.8%	65	20.9%
공공쿼터제 도입	5	1.6%	11	3.5%	9	2.9%	25	8.0%
창작 활동비 지원	24	7.7%	63	20.3%	17	5.5%	104	33.4%
전체	60	19.3%	180	57.9%	71	22.8%	311	100.0%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공간 보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공간 보유는 ‘창작 공간이 없다’ 69.0%(223명), ‘창작 공간이 있다’ 31.0%(100명)으로 나타났음

〈표 46〉 창작 공간 보유여부

항목	응답	비율
창작 공간이 있다	100	31.0
창작 공간이 없다	223	69.0
총계	323	100.0



- 창작공간 보유여부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 전체 대비 생활문화예술의 창작공간 보유는 21.0%(64명)으로 전문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 보유 5.6%(17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47〉 창작 공간 보유 집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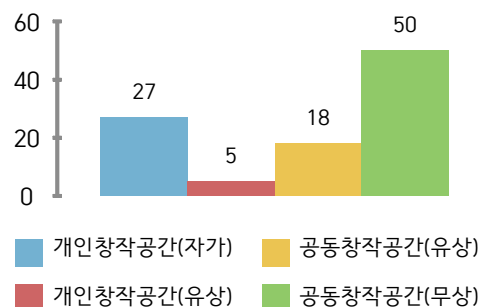
보유여부	문화예술인 유형						전체 (명, %)	
	전문 문화예술인 (명, %)		생활문화 문화예술인 (명, %)		잠재적 문화예술인 (명, %)			
보유하고 있다	17	5.6%	64	21.0%	17	5.6%	98	32.1%
보유하고 있지 않다	40	13.1%	115	37.7%	52	17.0%	207	67.9%
전체	57	18.7%	179	58.7%	69	22.6%	305	100.0%

- 창작공간의 형태

창작 공간의 형태는 ‘공동 창작공간(무상임대)’ 50.0%(50명), 개인 창작공간(자가) 27.0%(27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48〉 창작공간의 형태

항목	응답	비율
개인 창작공간(자가)	27	27.0
개인 창작공간(유상임대)	5	5.0
공동 창작공간(유상임대)	18	18.0
공동 창작공간(무상임대)	50	50.0
총계	100	100.0



○ 공간 이용 시 겪는 어려운 점

공간 이용 시 겪는 어려운 점은 2순위까지 응답한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27.5%, ‘장애인 지원인력 부재’ 27.4% 순으로 나타났음

〈표 49〉 공간 이용시 겪는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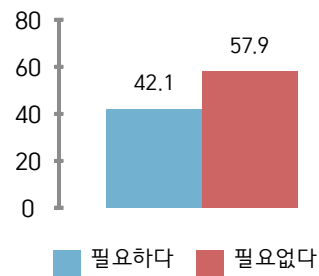
항목	1순위(n=608)		2순위(n=293)		합계비율 (n=901)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높은 대관 경쟁률	60	120	8	8	14.2
높은 대관 비용	61	122	38	38	17.8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97	194	54	54	27.5
장애인 지원인력 부재	63	126	121	121	27.4
시설관계자 인식 부족	23	46	72	72	13.1
총계	304	608	293	293	100.0

○ 문화예술 활동 시 도움 필요 여부(보조도구 또는 도우미)

문화예술 활동 시 도움 필요 여부는 ‘필요없다’ 57.9%(187명), ‘필요하다’ 42.1%(136명)으로 나타났음

〈표 50〉 문화예술 활동시 도움 필요 여부

항목	응답	비율
필요하다	136	42.1
필요없다	187	57.9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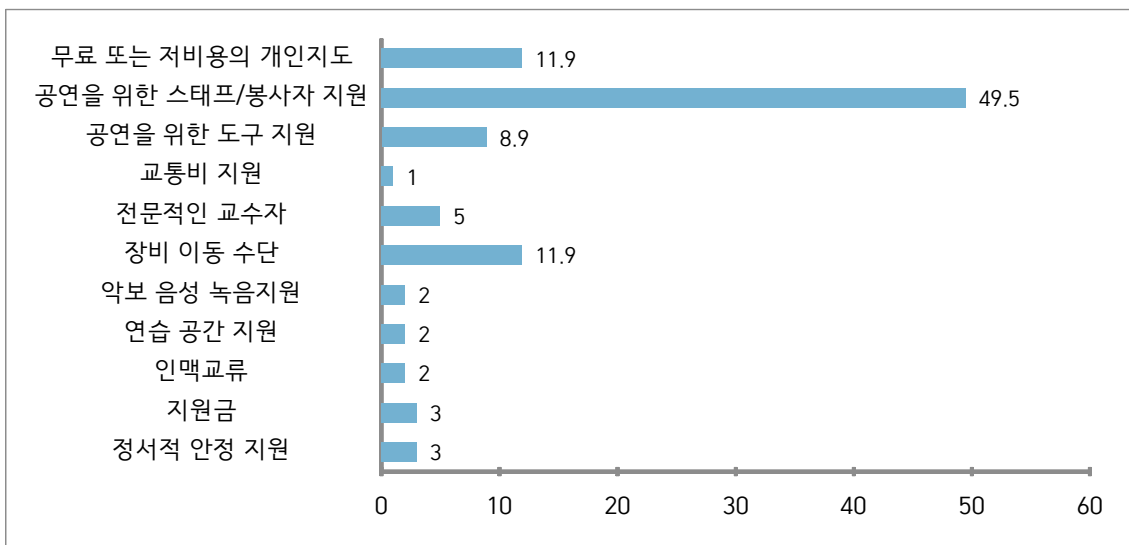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도움 요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도움 요구는 ‘공연을 위한 스태프/봉사자 지원’ 49.5%(50명), ‘무료 또는 저비용의 1:1 개인지도’와 ‘장비 이동 수단’이 각 11.9%(12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1〉 공간 이용 시 겪는 어려운 점

항목	응답	비율
무료 또는 저비용의 1:1 개인지도	12	11.9
공연을 위한 스태프/봉사자 지원	50	49.5
공연을 위한 도구 지원	9	8.9
교통비 지원	1	1.0
전문적인 교수자	5	5.0
장비 이동 수단	12	11.9
악보 음성 녹음지원	2	2.0
연습 공간 지원	2	2.0
인맥교류	2	2.0
지원금	3	3.0
정서적 안정 지원	3	3.0
총계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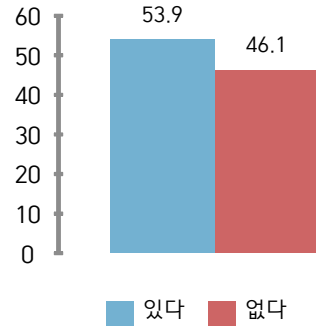
제4장 교류와 협업 영역

○ 문화예술 단체 가입 여부

문화예술 단체 가입 여부는 ‘가입되어 있다’ 53.9%(174명), ‘가입되어 있지 않다’ 46.1%(149명)으로 나타났음

〈표 52〉 문화예술 단체 가입 여부

항목	응답	비율
있다	174	53.9
없다	149	46.1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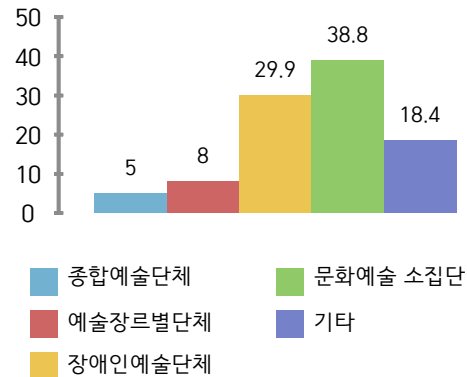


○ 가입한 단체유형

가입한 단체유형은 ‘문화예술 소집단’ 38.8%(78명) ‘장애인예술단체’ 29.9%(60명)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로는 복지관, 종교단체, 협회 등으로 나타났음

〈표 53〉 가입한 단체유형

항목	응답	비율
종합예술단체	10	5.0
예술 장르별 단체	16	8.0
장애인예술단체	60	29.9
문화예술 소집단	78	38.8
기타	37	18.4
총계	2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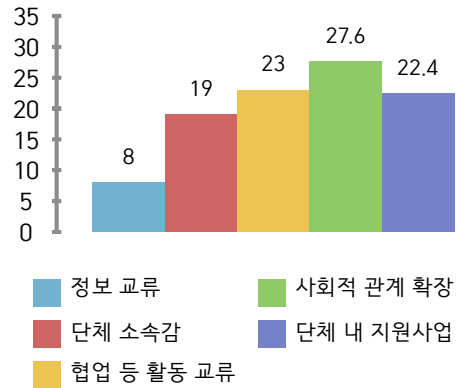


○ 단체 가입의 이유

단체 가입의 이유는 ‘사회적 관계 확장’ 27.6%(48명), ‘협업 등 활동교류’ 23.0%(4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4〉 단체 가입의 이유

항목	응답	비율
정보 교류	14	8.0
단체 소속감	33	19.0
협업 등 활동 교류	40	23.0
사회적 관계 확장	48	27.6
단체 내 지원사업	39	22.4
총계	1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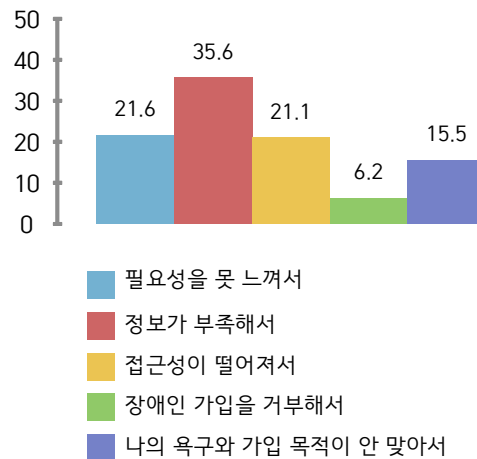


○ 단체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체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 35.6%(69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21.6%(42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5〉 단체 가입하지 않은 이유

항목	응답	비율
필요성을 못 느껴서	42	21.6
정보가 부족해서	69	35.6
접근성이 떨어져서	41	21.1
장애인 가입을 거부해서	12	6.2
나의 욕구와 가입목적이 안 맞아서	30	15.5
총계	1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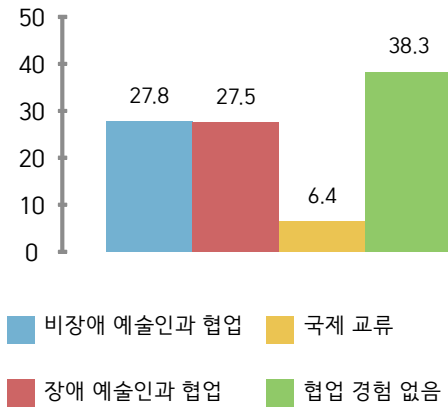


○ 협업경험 형태

협업경험 형태는 ‘협업경험 없음’ 38.3%(138명), ‘비장애 예술인과 협업’ 27.8%(100명), ‘장애 예술인과 협업’ 27.5%(99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6〉 협업경험 형태

항목	응답	비율
비장애 예술인과 협업	100	27.8
장애 예술인과 협업	99	27.5
국제 교류	23	6.4
협업 경험 없음	138	38.3
총계	3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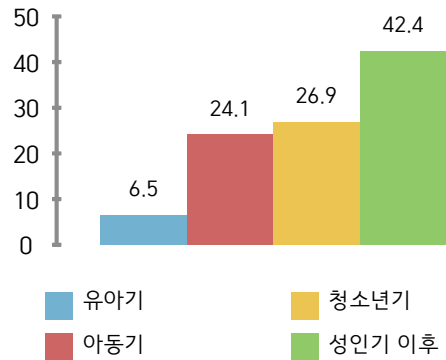
제5장 교육영역

○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는 ‘성인기 이후’ 42.4%(137명), ‘청소년기’ 26.9%(87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7〉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

항목	응답	비율
유아기	21	6.5
아동기	78	24.1
청소년기	87	26.9
성인기 이후	137	42.4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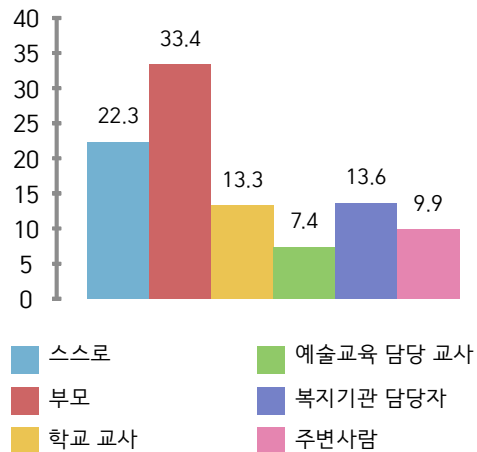


○ 예술적 재능 발견자

예술적 재능 발견자는 ‘부모’ 33.4%(108명), ‘스스로’ 22.3%(72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8〉 예술적 재능 발견자

항목	응답	비율
스스로	72	22.3
부모	108	33.4
학교 교사	43	13.3
예술교육 담당 교사	24	7.4
복지기관 담당자	44	13.6
주변사람	32	9.9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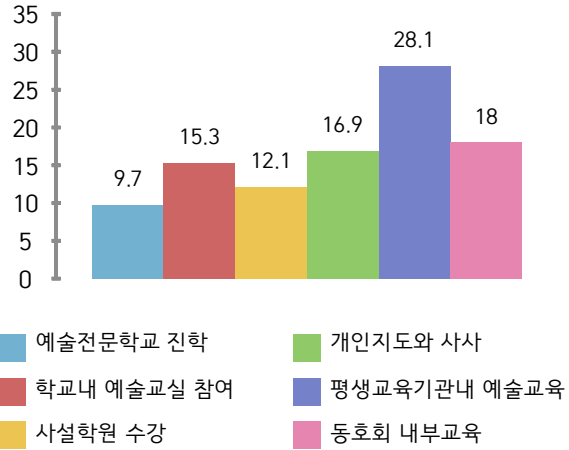


○ 예술적 재능 발견 후 받은 교육

예술적 재능 발견 후 받은 교육은 ‘평생교육기관 내 예술교육’ 28.1%(125명), ‘동호회 내부교육’ 18.0%(8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9〉 받은 교육

항목	응답	비율
예술전문학교 진학	43	9.7
학교내 예술 교실 참여	68	15.3
사설학원 수강	54	12.1
개인지도와 사사	75	16.9
평생교육기관내 예술교육	125	28.1
동호회 내부교육	80	18.0
총계	445	100.0



○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을 2순위까지 응답한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정보 부족’ 23.5%, ‘교육기관의 부재’ 21.9%, ‘예술 전문인력의 부재’ 2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60〉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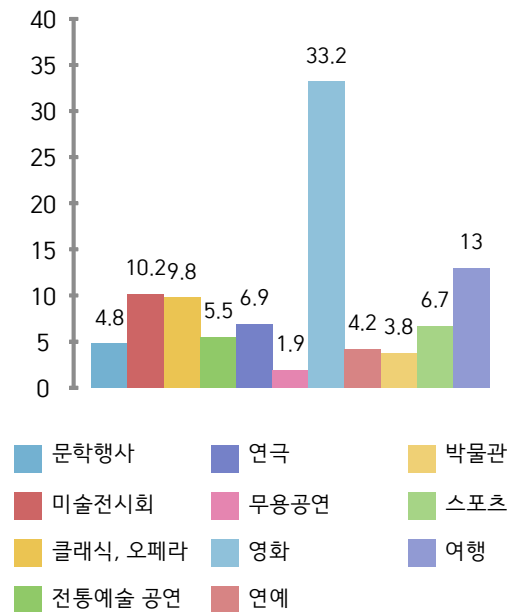
항목	1순위(n=614)		2순위(n=293)		합계비율 (n=907)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교육기관의 부재	87	174	25	25	21.9
예술 전문인력의 부재	74	148	49	49	21.7
정보 부족	74	148	65	65	23.5
시설 및 기자재 부족	38	76	66	66	15.7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34	68	88	88	17.2
총계	307	614	293	293	100.0

○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는 ‘영화’ 33.2%, ‘여행’ 13.0%, ‘미술전시회’ 10.2%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

항목	응답	비율
문학행사	176	4.8
미술전시회	374	10.2
클래식, 오페라	356	9.8
전통예술 공연	199	5.5
연극	250	6.9
무용공연	71	1.9
영화	1212	33.2
연예	153	4.2
박물관	137	3.8
스포츠	245	6.7
여행	476	13.0
총계	3,6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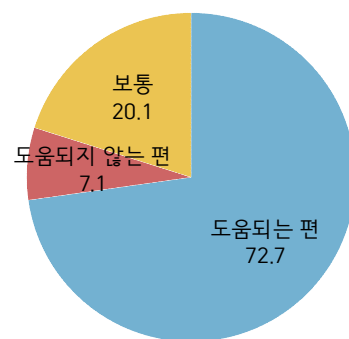


○ 문화예술 관람이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되는 정도

문화예술 관람이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되는 정도는 ‘도움된다’ 47.4%(153명), ‘매우 도움된다’ 28.2%(91명)로 긍정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62〉 도움되는 정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도움된다	95	29.4
도움된다	140	43.3
보통이다	65	20.1
도움 되지 않는다	15	4.6
매우 도움 되지 않는다	8	2.5
총계	323	100.0



제6장 창작 여건과 인식 영역

□ 창작 여건

○ 지난 3년간 지원 받은 기관

지난 3년간 지원 받은 기관은 ‘복지관’ 60.6%(43명), ‘구청’ 7.0%(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63〉 지난 3년간 지원 받은 기관

항목	응답	비율
복지관	43	60.6
구청	5	7.0
대학교	3	4.2
종교단체	3	4.2
부산문화재단	8	11.3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1	1.4
부산특수연구원	2	2.8
기업	1	1.4
예술인복지재단	1	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1.4
평창스페셜아트올림픽위원회	1	1.4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1	1.4
자립생활센터	1	1.4
총계	71	100.0

○ 지난 3년간 받은 지원 내용

지난 3년간 받은 지원내용은 ‘공간지원’ 25.4%(17명), ‘공연비/전시지원비 지원’ 23.9%(16명), ‘강사 지원’ 22.4%(1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64〉 지난 3년간 받은 지원내용

항목	응답	비율
강사	15	22.4
공간	17	25.4
공연관람	4	6.0
공연비/전시지원비	16	23.9
주민과의 만남	4	6.0
멘토링	1	1.5
대회 참여	2	3.0
전문가 과정 참여	1	1.5
언어치료	1	1.5
예술강사연수	1	1.5
교육기자재 구입비	3	4.5
교류활동	2	3.0
총계	67	100.0

○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액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액은 ‘10-50만원 미만’ 38.2%(13명), ‘10만원 미만’ 26.5%(9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65〉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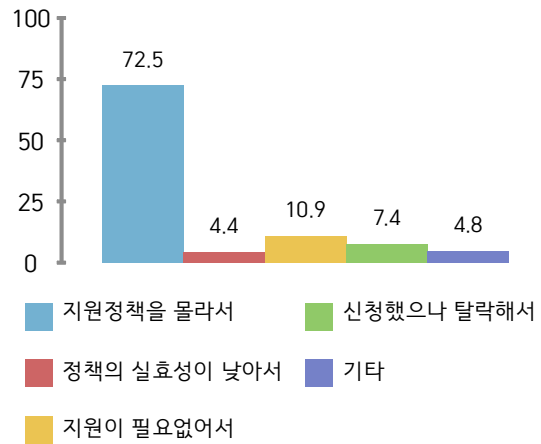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10만원 미만	9	26.5
10-50만원 미만	13	38.2
50-100만원 미만	2	5.9
100-200만원 미만	4	11.8
200-500만원 미만	2	5.9
500-1000만원 미만	2	5.9
1000-2000만원 미만	1	2.9
2000-5000만원 미만	1	2.9
총계	34	100.0

○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는 ‘지원정책을 몰라서’ 72.5%(166명), ‘지원이 필요없어서’ 10.9%(25명) 순으로 나타났음.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66〉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항목	응답	비율
지원정책을 몰라서	166	72.5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서	10	4.4
지원이 필요없어서	25	10.9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17	7.4
기타	11	4.8
총계	2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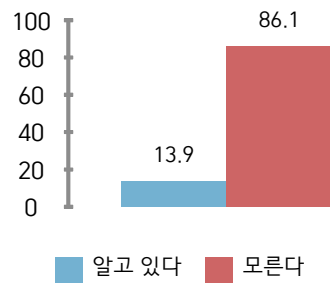


○ 예술인패스에 대한 이해여부

예술인패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 ‘모른다’ 86.1%(278명), ‘알고 있다’ 13.9%(45명)으로 나타났음

〈표 67〉 예술인패스 이해여부

항목	응답	비율
알고 있다	45	13.9
모른다	278	86.1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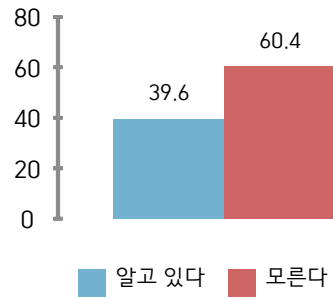


○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이해여부

부산문화재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 ‘모른다’ 60.4%(195명), ‘알고 있다’ 39.6%(128명)으로 나타났음

〈표 68〉 부산문화재단 이해여부

항목	응답	비율
알고 있다	128	39.6
모른다	195	60.4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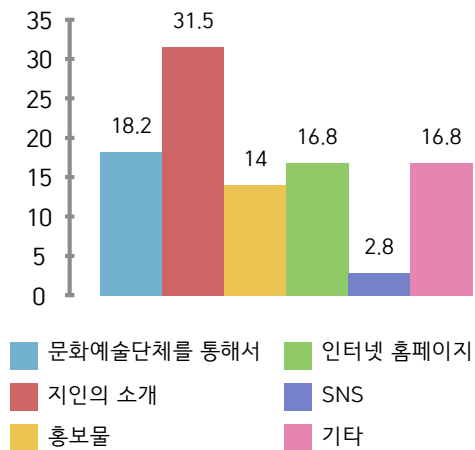


○ 부산문화재단을 알게 된 경로

부산문화재단을 알게 된 경로는 ‘지인의 소개’ 31.5%(45명),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18.2%(26명), ‘인터넷 홈페이지’ 16.8%(24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69〉 알게 된 경로

항목	응답	비율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26	18.2
지인의 소개	45	31.5
홍보물	20	14.0
인터넷 홈페이지	24	16.8
SNS	4	2.8
기타	24	16.8
총계	1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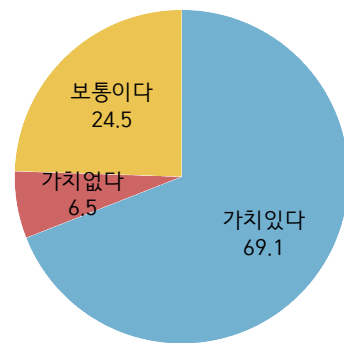


□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에 대한 인식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기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727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활동 시 겪는 한계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72로 나타났다
- 나는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 41.2%(133명), ‘매우 그렇다’ 27.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0〉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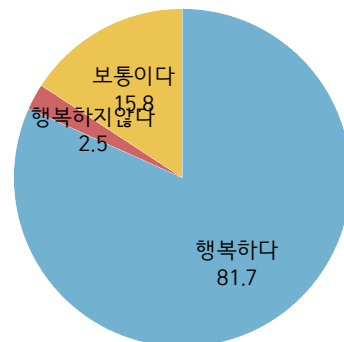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90	27.9
그렇다	133	41.2
보통이다	79	24.5
그렇지 않다	18	5.6
매우 그렇지 않다	3	0.9
총계	323	100.0



-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 41.5%(134명), ‘매우 그렇다’ 40.2%(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문화예술 활동이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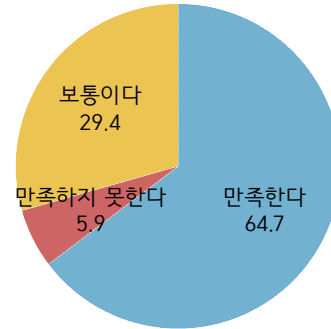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30	40.2
그렇다	134	41.5
보통이다	51	15.8
그렇지 않다	8	2.5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총계	323	100.0



- 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 39.9%(129명), ‘보통이다’ 29.4%(9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7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80	24.8
그렇다	129	39.9
보통이다	95	29.4
그렇지 않다	16	5.0
매우 그렇지 않다	3	0.9
총계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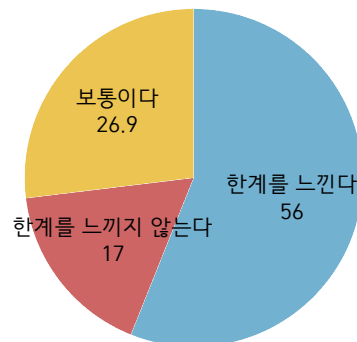
〈표 73〉 문화예술 활동 인식(전체)

항목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활동인식	문화예술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89	.90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20	.7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3.83	.89

-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
다에 대해 ‘그렇다’ 39.6%(128명), ‘보통이다’ 26.9%(87명) 순으로 나타
났음

〈표 74〉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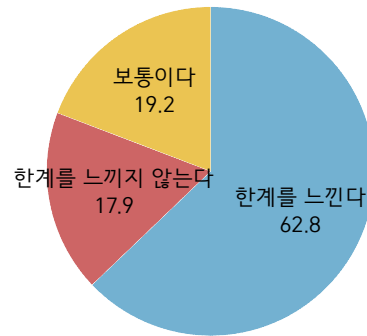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53	16.4
그렇다	128	39.6
보통이다	87	26.9
그렇지 않다	40	12.4
매우 그렇지 않다	15	4.6
총계	323	100.0



-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
다에 대해 ‘그렇다’ 36.2%(117명), ‘매우 그렇다’ 26.6%(86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75〉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여부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86	26.6
그렇다	117	36.2
보통이다	62	19.2
그렇지 않다	42	13.3
매우 그렇지 않다	15	4.6
총계	323	100.0



〈표 76〉 문화예술 활동 한계 인식(전체)

항목		평균	표준편차
한계 인식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3.51	1.05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3.67	1.14

-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기인식은 주업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활동 시 겪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문화예술교육을 주업으로 할수록 문화예술의 내적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예술활동 시 겪는 예술적,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역시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원 계획 시,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이 제공 될 필요가 있음

〈표 77〉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기인식과 한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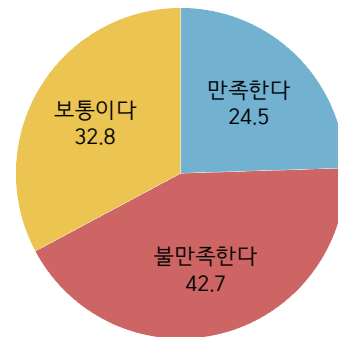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t값
문화예술활동 자기인식	주업	4.07	.69	2.370**
	비주업	3.89	.68	
문화예술활동시 한계에 대한 인식	주업	3.80	.90	3.619***
	비주업	3.42	.95	

□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

-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36로 나타났다
- 나는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만족한다에 대해 ‘보통이다’ 32.8%(106명), ‘그렇지 않다’ 26.6%(8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27	8.4
그렇다	52	16.1
보통이다	106	32.8
그렇지 않다	86	26.6
매우 그렇지 않다	52	16.1
총계	323	100.0



-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9〉 장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	전문 문화예술인	60	2.46	1.19	2.15	2.77
	생활 문화예술인	180	2.71	1.14	2.54	2.87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95	1.16	2.68	3.23
	합 계	311	2.72	1.16	2.59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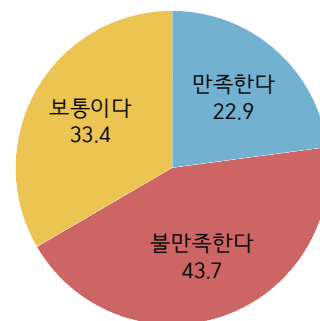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	집단-간	7.87	2	3.93	2.93	.054
	집단-내	412.78	308	1.34		
	합계	420.66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J)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만족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24	.17	.36	-.66	.18
		잠재적 문화예술인	-.49	.20	.05	-.99	.00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예술인	.24	.17	.36	-.18	.66
		잠재적 문화예술인	-.24	.16	.31	-.64	.15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49	.20	.05	-.00	.99
		생활 문화예술인	.24	.16	.31	-.15	.64

○ 나는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만족한다에 대해 ‘보통이다’ 33.4%(108명), ‘그렇지 않다’ 29.1%(94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80〉 장애 문화예술인 사회적 평가 만족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23	7.1
그렇다	51	15.8
보통이다	108	33.4
그렇지 않다	94	29.1
매우 그렇지 않다	47	14.6
총계	323	100.0



○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81〉 장애 문화예술인 사회적 평가 만족도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평가	전문 문화예술인	60	2.56	1.14	2.27	2.86
	생활 문화예술인	180	2.63	1.09	2.47	2.80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97	1.14	2.70	3.24
	합계	311	2.70	1.12	2.57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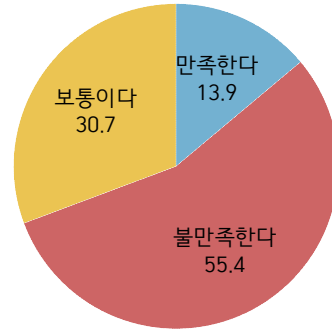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평가	집단-간	6.98	2	3.49	2.80	.06
	집단-내	384.20	308	1.24		
	합계	391.19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J)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평가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07	.16	.91	-.48	.33
		잠재적 문화예술인	-.40	.19	.11	-.88	.07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07	.16	.91	-.33	.48
		잠재적 문화예술인	-.33	.15	.10	-.71	.05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40	.19	.11	-.07	.88
		생활 문화예술인	.33	.15	.10	-.05	.71

○ 나는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에 만족한다에 대해 ‘보통이다’ 30.7%(99명), ‘그렇지 않다’ 30.3%(98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82〉 경제적 보상 수준 만족도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1	3.4
그렇다	34	10.5
보통이다	99	30.7
그렇지 않다	98	30.3
매우 그렇지 않다	81	25.1
총계	323	100.0



○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집단과 잠재적 문화예술인 집단 간의 인식차이에서 유의확률 .017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 문화예술인은 잠재적 문화예술인에 비해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83〉 경제적 보상 수준 만족도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문 문화예술인	60	2.10	.96	1.84	2.35
	생활 문화예술인	180	2.32	1.08	2.16	2.48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63	1.14	2.36	2.90
	합계	311	2.35	1.08	2.22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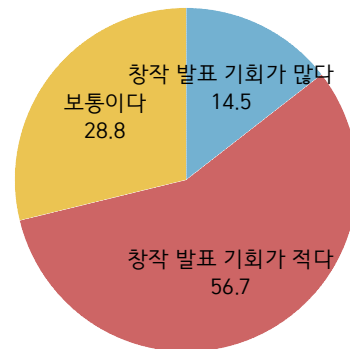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집단-간	9.60	2	4.80	4.142	.017
	집단-내	357.19	308	1.16		
	합계	366.79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II)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22	.16	.385	-.61	.17
		잠재적 문화예술인	-.53*	.18	.019	-.99	-.06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22	.16	.385	-.17	.61
		잠재적 문화예술인	-.31	.15	.120	-.68	.05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53*	.18	.019	.06	.99
		생활 문화예술인	.31	.15	.120	-.05	.68

○ 나는 부산시에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 35.0%(113명), ‘보통이다’ 28.8%(9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84〉 창작 발표 기회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2	3.7
그렇다	35	10.8
보통이다	93	28.8
그렇지 않다	113	35.0
매우 그렇지 않다	70	21.7
총계	323	100.0



○ 부산시에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에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한 전문 문화

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85〉 창작 발표 기회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전문 문화예술인	60	2.28	1.07	2.00 2.56
	생활 문화예술인	180	2.40	1.05	2.25 2.56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40	1.08	2.15 2.66
	합계	311	2.38	1.06	2.26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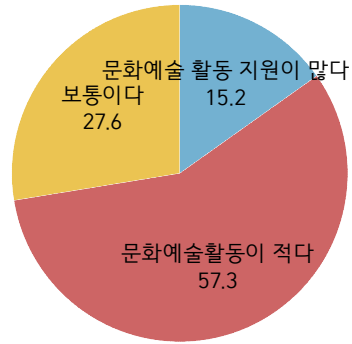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집단-간	.734	2	.36	.322	.725
	집단-내	350.73	308	1.13		
	합계	351.46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II)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발표 기회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12	.15	.745	-.51	.26
		잠재적 문화예술인	-.12	.18	.800	-.58	.33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12	.15	.745	-.26	.51
		잠재적 문화예술인	-.00	.14	1.000	-.37	.36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12	.18	.800	-.33	.58
		생활 문화예술인	.00	.14	1.000	-.36	.37

○ 나는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생각한데 대해 ‘그렇지 않다’ 32.5%(105명), ‘보통이다’ 27.6%(89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86〉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0	3.1
그렇다	39	12.1
보통이다	89	27.6
그렇지 않다	105	32.5
매우 그렇지 않다	80	24.8
총계	323	100.0



○ 부산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87〉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문화예술 활동지원	전문 문화예술인	60	2.28	1.07	2.00	2.56
	생활문화 예술인	180	2.40	1.05	2.25	2.56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40	1.08	2.15	2.66
	합계	311	2.38	1.06	2.26	2.50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문화예술 활동지원	전문 문화예술인	60	2.18	1.09	1.90	2.46
	생활 문화예술인	180	2.33	1.04	2.18	2.49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53	1.16	2.25	2.81
	합계	311	2.35	1.08	2.23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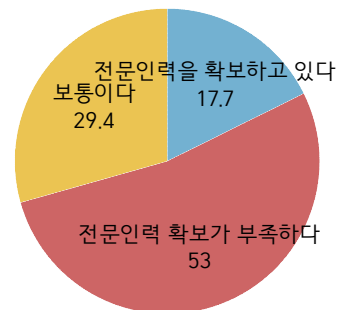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만족	집단-간	4.12	2	2.06	1.758	.174
	집단-내	360.97	308	1.17		
	합계	365.093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J)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문화예술 활동지원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15	.16	.629	-.55	.24
		잠재적 문화예술인	-.35	.18	.181	-.81	.11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15	.16	.629	-.24	.55
		잠재적 문화예술인	-.19	.15	.434	-.56	.17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35	.18	.181	-.11	.81
		생활문화 예술인	.19	.15	.434	-.17	.56

○ 나는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 31.9%(103명), ‘보통이다’ 29.4%(95명) 순으
로 나타났다.

〈표 88〉 장애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확보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20	6.2
그렇다	37	11.5
보통이다	95	29.4
그렇지 않다	103	31.9
매우 그렇지 않다	68	21.1
총계	323	100.0



○ 부산시 장애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여부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 장애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여부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89〉 장애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전문 문화예술인	60	2.25	1.06	1.97	2.52
	생활 문화예술인	180	2.55	1.14	2.38	2.71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52	1.19	2.23	2.80
	합계	311	2.48	1.14	2.35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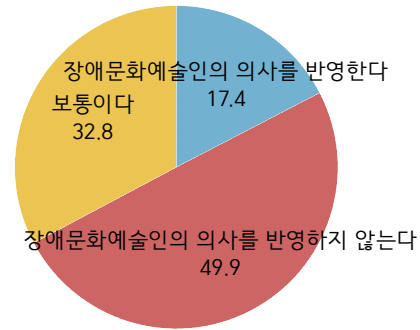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집단-간	4.16	2	2.08	1.598	.204
	집단-내	401.51	308	1.30		
	합계	405.68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J)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30	.17	.213	-.71	.11
		잠재적 문화예술인	-.27	.20	.401	-.76	.22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30	.17	.213	-.11	.71
		잠재적 문화예술인	.02	.16	.984	-.36	.42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27	.20	.401	-.22	.76
		생활 문화예술인	-.02	.16	.984	-.42	.36

○ 나는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보통이다’ 32.8%(106명), ‘그렇지 않다’ 31.0%(10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9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의사반영 여부

항목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8	5.6
그렇다	38	11.8
보통이다	106	32.8
그렇지 않다	100	31.0
매우 그렇지 않다	61	18.9
총계	323	100.0



○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를 잘 반영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를 잘 반영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9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의사반영 여부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여부	전문 문화예술인	60	2.48	1.21	2.16	2.79
	생활 문화예술인	180	2.48	1.08	2.33	2.64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63	1.05	2.38	2.88
	합계	311	2.52	1.10	2.39	2.64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여부	집단-간	1.17	2	.58	.483	.617
	집단-내	374.44	308	1.21		
	합계	375.61	310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II)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장애 문화예술인 의사반영 여부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00	.16	.999	-.40	.39
		잠재적 문화예술인	-.15	.19	.739	-.62	.32
	생활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00	.16	.999	-.39	.40
		잠재적 문화예술인	-.14	.15	.645	-.52	.23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15	.19	.739	-.32	.62
		생활 문화예술인	.14	.15	.645	-.23	.52

〈표 92〉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전체)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만족한다	2.75	1.15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만족한다	2.72	1.11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에 만족한다	2.37	1.07
부산시에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2.40	1.05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생각한다	2.36	1.07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50	1.12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결정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2.54	1.09
전체	2.51	.93

○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93〉 문화예술교육 주업 여부에 따른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t값
문화예술 정책지원 인식	주업	2.4316	.89345	-1.459
	비주업	2.5847	.96481	

○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만족에 대한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문화예술인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

〈표 94〉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유형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만족	전문 문화예술인	60	2.33	.92	.12	2.09
	생활 문화예술인	180	2.49	.93	.06	2.35
	잠재적 문화예술인	71	2.66	.97	.11	2.43
	합계	311	2.50	.94	.053	2.39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만족	집단-간	3.629	2	1.81	2.043	.131
	집단-내	273.50	308	.88		
	합계	277.13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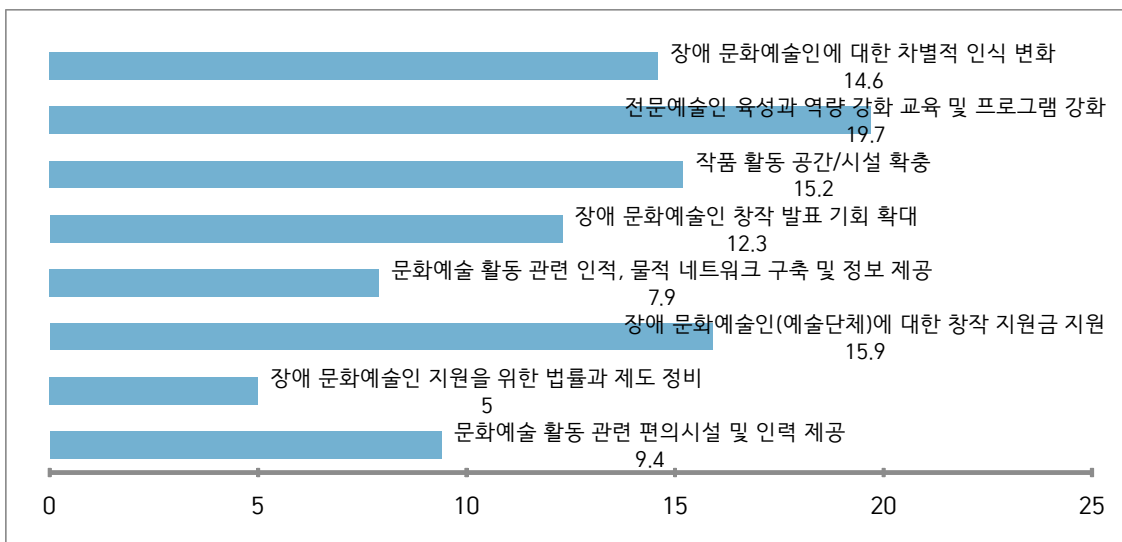
종속 변수	(I) 예술인유형	(J) 예술인유형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만족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문화 예술인	-.16	.14	.522	-.50	.18
		잠재적 문화예술인	-.33	.16	.134	-.73	.07
	생활문화 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16	.14	.522	-.18	.50
		잠재적 문화예술인	-.17	.13	.428	-.49	.15
	잠재적 문화예술인	전문 문화예술인	.33	.16	.134	-.07	.73
		생활 문화예술인	.17	.13	.428	-.15	.49

○ 장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장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지원과 정책을 2순위까지 응답한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19.7%,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15.9%,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15.2% 순으로 나타났음.

〈표 95〉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항목	1순위(n=614)		2순위(n=215)		합계비율 (n=917)
	응답	가중치 (x2)	응답	가중치 (x1)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65	130	4	4	14.6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70	140	41	41	19.7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48	96	43	43	15.2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37	74	39	39	12.3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25	50	22	22	7.9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41	82	64	64	15.9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8	16	30	30	5.0
문화예술 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13	26	60	60	9.4
총계	307	614	215	215	100.0



-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1순위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은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4.5%(14명), 생활 문화예술인은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11.6%(36명), 잠재적 문화예술인은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6.8%(21명)로 나타났음

〈표 96〉 장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1순위 집단비교

창작공간의 형태	문화예술인 유형						전체 (명, %)	
	전문 문화예술인 (명, %)		생활문화 문화예술인 (명, %)		잠재적 문화예술인 (명, %)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11	3.5%	36	11.6%	16	5.1%	63	20.3%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14	4.5%	33	10.6%	21	6.8%	68	21.9%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9	2.9%	35	11.3%	12	3.9%	56	18.0%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4	1.3%	30	9.6%	5	1.6%	39	12.5%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11	3.5%	11	3.5%	4	1.3%	26	8.4%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9	2.9%	29	9.3%	2	.6%	40	12.9%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2	0.6%	0	0.0%	6	1.9%	8	2.6%
문화예술 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0	0.0%	6	1.9%	5	1.6%	11	3.5%
전체	60	19.3%	180	57.9%	71	22.8%	311	100.0%

-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순위에 대한 문화예술인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은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5.8%(18명), 생활문화 문화예술인은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각 11.9%(37명), 잠재적 문화예술인은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5.1%(16명)으로 나타났음

〈표 97〉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순위 집단비교

창작공간의 형태	문화예술인 유형						전체 (명, %)	
	전문 문화예술인 (명, %)		생활문화 문화예술인 (명, %)		잠재적 문화예술인 (명, %)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0	0.0%	2	.6%	2	.6%	4	1.3%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5	1.6%	23	7.4%	14	4.5%	42	13.5%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8	2.6%	29	9.3%	16	5.1%	53	17.0%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9	2.9%	24	7.7%	7	2.3%	40	12.9%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4	1.3%	13	4.2%	6	1.9%	23	7.4%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18	5.8%	37	11.9%	10	3.2%	65	20.9%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11	3.5%	15	4.8%	3	1.0%	29	9.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5	1.6%	37	11.9%	13	4.2%	55	17.7%
전체	60	19.3%	180	57.9%	71	22.8%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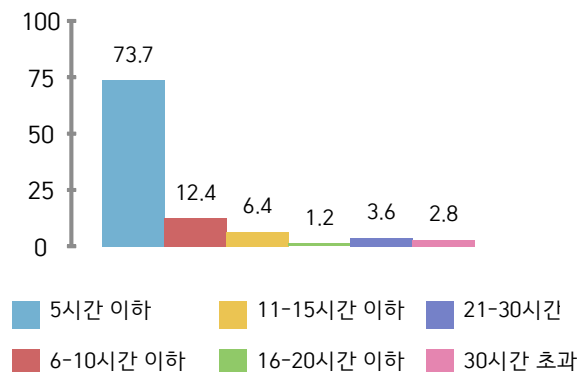
제7장 문화예술 활동 관련 경제활동

○ 문화예술 활동 투입시간

문화예술 활동 투입시간은 ‘5시간 이하’ 73.7%(185명), ‘6-10시간 이하’ 12.4%(31명), ‘11-15시간 이하’ 6.4%(16명)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은 6.6시간으로 나타났음

〈표 98〉 문화예술 활동 투입시간

항목	응답	비율
5시간 이하	185	73.7
6-10시간 이하	31	12.4
11-15시간 이하	16	6.4
16-20시간 이하	3	1.2
21-30시간 이하	9	3.6
30시간 초과	7	2.8
총계	2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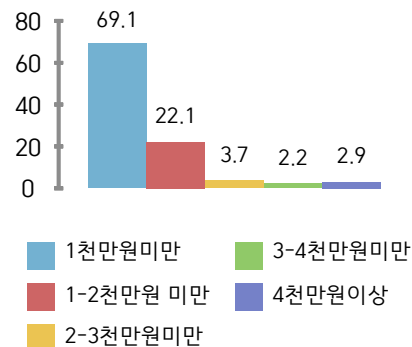


○ (주업이 문화예술활동인 경우) 2017년 연간 총소득

(주업이 문화예술활동인 경우) 2017년 연간 총소득은 ‘1천만원 미만’ 69.1%(94명), ‘1-2천만원 미만’ 22.1%(30명), ‘2-3천만원 미만’ 3.7%(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99〉 2017년 연간 총소득

항목	응답	비율
1천만원 미만	94	69.1
1-2천만원 미만	30	22.1
2-3천만원 미만	5	3.7
3-4천만원 미만	3	2.2
4천만원 이상	4	2.9
총계	1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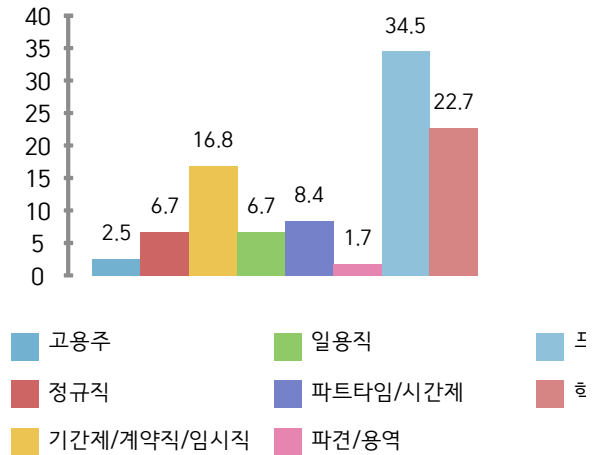


○ (주업이 문화예술활동인 경우) 고용 형태

(주업이 문화예술활동인 경우)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34.5%(41명), ‘잠재적 문화예술인’ 22.7%(27명), ‘기간제/계약직/임시직’ 16.8%(20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0〉 고용형태(주업인 경우)

항목	응답	비율
고용주	3	2.5
정규직	8	6.7
기간제/계약직/임시직	20	16.8
일용직	8	6.7
파트타임/시간제	10	8.4
파견/용역	2	1.7
프리랜서	41	34.5
잠재적 문화예술인	27	22.7
총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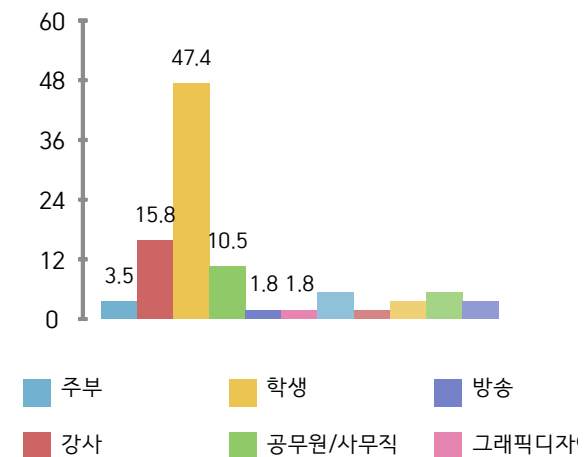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직업 또는 업무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직업 또는 업무는 ‘잠재적 문화예술인’ 47.4%(27명), ‘강사’ 15.8%(9명), ‘공무원/사무직’ 10.5%(6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1〉 직업 또는 업무

항목	응답	비율
주부	2	3.5
강사	9	15.8
잠재적문화예술인	27	47.4
공무원/사무직	6	10.5
방송	1	1.8
그래픽디자이너	1	1.8
사회복지	3	5.3
미화원	1	1.8
안마사	2	3.5
자영업	3	5.3
운동분야	2	3.5
총계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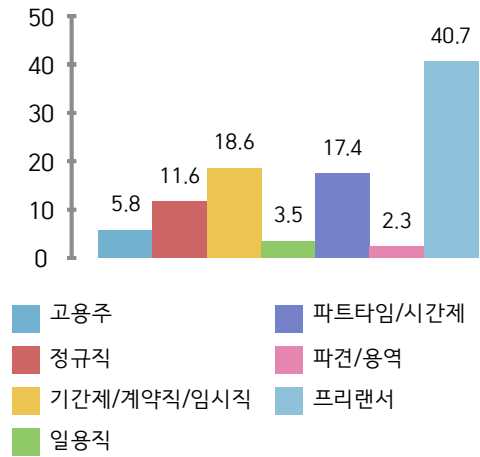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고용 형태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40.7%(35명), ‘기간제/계약직/임시직’ 18.6%(16명), ‘파트타임/시간제’ 17.4%(1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2〉 고용형태(주업이 아닌 경우)

항목	응답	비율
고용주	5	5.8
정규직	10	11.6
기간제/계약직/임시직	16	18.6
일용직	3	3.5
파트타임/시간제	15	17.4
파견/용역	2	2.3
프리랜서	35	40.7
총계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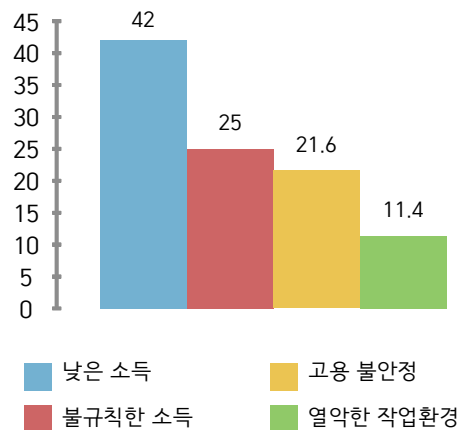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이유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 42.0%(37명), ‘문화예술 활동의 불규칙한 소득’ 25.0%(22명), ‘문화예술 활동의 고용 불안정’ 21.6%(19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3〉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이유

항목	응답	비율
문화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	37	42.0
문화예술 활동의 불규칙한 소득	22	25.0
문화예술 활동의 고용 불안정	19	21.6
문화예술 활동의 열악한 작업 환경	10	11.4
총계	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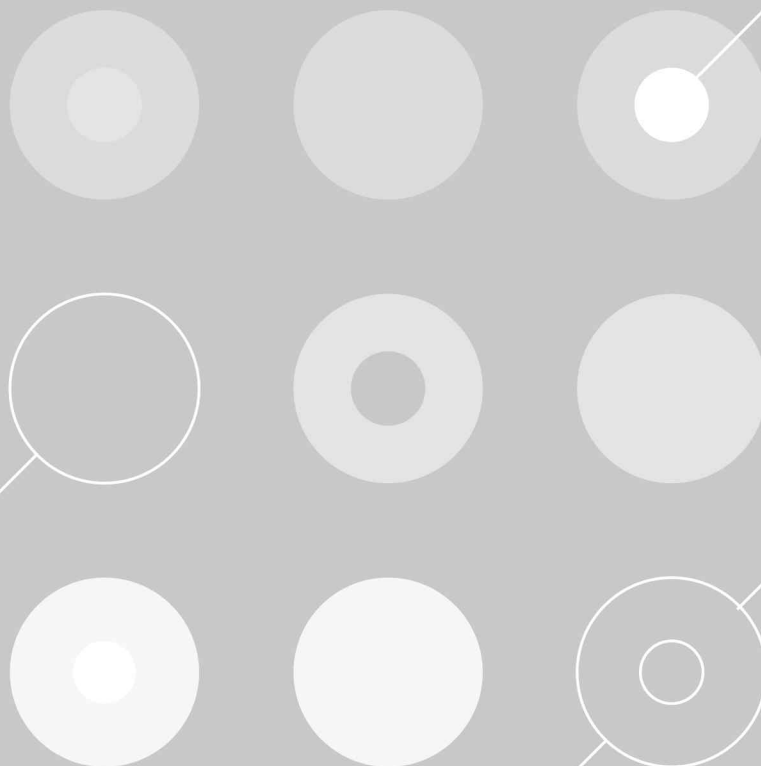
V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1장 결론 및 시사점

제2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안



V.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1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반적 현황

- 부산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323명이며 남성 57%(184명) 여성 43%(139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성비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연령대는 20대에서 70, 80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젊은 장애 문화예술인이 많다는 점이 고무적임. 따라서 젊은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임
-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2.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영역

-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은 14개 문화예술분야에 골고루 활동 중임. 음악, 공예, 사진 등의 3개 분야를 합친 비율이 60%에 육박하여 이들이 좀 더 다양한 예술분야를 접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활동 활동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56%를 차지함.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연령이 낮은 이유도 있으나 입문시기 자체가 늦다는 것임. 문화예술 활동 입문시기조사 결과도 복지기관의 문화예술

- 교육이 가장 많은 34.6%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줌
- 따라서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걱정하는 시기, 즉 학령기 또는 그 이전에 자신이 예술적 재능과 취향을 발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또한 조사결과 20년 이상 예술분야에 종사해 온 장애 문화예술인도 적은 비율이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교육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교육의 강화와 성장단계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난 3년간의 문화예술 활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 1~5회가 가장 많은 48%로 나타났고 한 번도 없었다는 대답도 24.5%를 차지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발표기회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생활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문항(예술 비전공자이며 동호회, 동아리 활동)에 해당하는 장애 문화예술인이 28.2%로 가장 많음
-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인패스를 가진 전문 문화예술인의 비중은 13.3%, 예술전공 잠재적 문화예술인(잠재적 장애 문화예술인) 15.3로 다소 적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사회참여 및 교류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에게 문화예술의 의미는 단순한 재능의 발견을 넘어 행복한 삶과 사회참여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장애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대체로 보통(25,4%)과 높은 수준(35%)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업에는 미술/공예분야, 음악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트렌드인 방송, 유튜버 등에도 관심을 보였음. 기타 공연 기획, 교수자 등 문화예술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3.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및 공간

-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기회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1순위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꼽음.
 - 이러한 결과는 전문 문화예술인, 생활 문화예술인, 잠재적 예술인 간에 동일하게 나타났음. 단, 2순위는 전문 문화예술인과 잠재적 예술인은 창작활동비 지원을, 생활 문화예술인은 공간 확보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조사결과 전문 문화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공간이 없는 경우도 5.6%이며 있다 하더라도 공동 창작 공간이 50%이상임. 또한 이러한 공간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인력의 부재로 나타남
 - 부산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지원인력의 양방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의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4. 교류 및 협업영역

- 장애 문화예술인들은 53.9% 가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하여 보통이상의 단체참여율을 보임. 또한 이들은 장애인 예술단체 보다는 문화예술 소집단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38.8%) 비장애 예술인과 동료 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경험도 56%에 달함

- 단체 가입이유는 사회적 관계 확장과 교류로 나타나 앞선 문화예술활동의 목표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관계망 확장을 위해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이들에게 사회참여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적지만 미가입 사유 중 가입을 거부해서라는 답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5. 교육영역

-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재능 발견시기가 성인기 이후(42,4%)라는 대답이 가장 많고 이에 반해 유아동기 라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음(30.6%). 또한 재능 발견 이후의 교육연계도 상급학교 진학이 아니라 개인지도와 사사, 평생교육기관 내 예술교육이 50%에 육박함
 - 이러한 결과는 예술분야에 공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교육기관의 부재는 비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진입부터의 장벽이 되고 있음.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말해 줌
 - 따라서 교육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유아동기부터의 문화예술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마련이 시급함
- 한편,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화 등 특정한 형태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람이 문화예술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72.7%)는 높은 응답 결과로 보았을 때 보다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음

6. 창작여건 및 인식

- 3년간의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로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복지관을 통해서가 60%이상임. 복지관 지원이란 복지관 동아리 활동 지원에 다름 아님. 이러한 결과는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또한 지원받지 못한 이유의 대부분(72.5%)이 지원 정책을 몰라서로 나타나 지원에 대한 정보부족, 홍보 부족이 심각함
- 더불어 예술인패스나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다양화와 양적 투입이 필요할 것임
- 장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균 3.89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평균 4.2점). 그러나 이에 비해 예술 활동의 경제적,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평균 3.5점). 따라서 예술 활동으로 인한 만족감과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평균이하 (2.7점)의 낮은 점수를 보여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장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강화 교육(19.7%)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14.6%)도 높게 나타나 장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 당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7. 예술 활동 관련 사회 경제 활동

- 문화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42.7%인 138명이며 2017년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고용형태도 정규직은 6.7%에 불과하여 저임금과 불안정한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음
-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이유도 낮고 불규칙한 소득(67%)으로 조사되어 장애 문화예술인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 예술 분야 다양한 일자리 창출, 장애예술 공공쿼터제 마련 등 다양한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제2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장애문화예술”이 되어야 함
- 모두를 위한 장애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목표아래 방향성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 져야 함



[그림 4]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 실태조사 결과 발표기회, 교육기회, 지원인력, 창작 공간, 시설 등 전반적인 부족이 두드러짐. 따라서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양적, 질적 지원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 예술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인식 등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장애 예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벽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방식인 장애예술을 열등하거나 보호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경험 자체가 예술의 자양분이며 예술적 수월성을 가진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함
-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혜적 관계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해야 함
- 또한 비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손쉽게 장애예술을 접하고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머리고 나아가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제3장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안

1. 장애문화예술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법적 재정비와 실행계획 수립

- 2017년 6월 제정, 시행된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야 함
타 시도에 비해 발빠른 조례제정으로 장애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일천한 상태임
더구나 조례 내용에 부산시의 노력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할 수 있다”는 문구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의무규정인 “해야 한다”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장애 문화예술 전담 기관 배치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함
- 전담 기관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창작, 발표의 거점 공간이자 부산시 장애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부산문화재단 또는 부산시 조례에 명시된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실현 가능함

○ 장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TF팀 발족

- 부산시 장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함
- 부산 지역 장애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 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장애 문화예술교육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장기 장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 부산시에는 현재 장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자체가 전무후무함. 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지듯이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질적인 투입이 시급한 상황임
 - 실태조사 결과 유아동기, 학령기 문화예술교육 부족과 성인기 이후 전문 문화예술교육 연계 부족 등이 대두됨. 따라서 생애주기별 장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생애시기별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연구팀에 의해 프로그램 개발 후 모델링을 거쳐 공교육 현장과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에 보급 실시하는 단계를 거침

- 단기 장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 학령기와 성인기의 지속적인 장애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아동기의 집중 예술교육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유아의 연령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 이어 초등 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토록 함. 이 시기에는 기존 예술가 그룹과 연결하여 예술가로서의 진로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함

3. 장애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

- 장애 문화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국제사회의 장애 문화예술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의 전문예술역량 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함

- 장애 문화예술 초급 입문자와 기존 장애 문화예술가들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와 역량 강화 필요

- 기존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예술인 지원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음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과 더불어 예술지원사업 선정 기준 완화 정책 마련

4.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식 개선 정책

-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사회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인력 교육과 양성
 - 조사결과 장애 문화예술인의 활동 제약 요소 중 지원인력 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따라서 기존 문화시설 내 인력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에 집중해야 함
 - 장애유형별, 예술영역별 교육전문가와 장애 문화예술인 공연지원인력 양성이 필요함
- 장애 문화예술 공공쿼터제 의무 실시
 - 장애 문화예술인 공연에 비장애인 참여와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예술 공공쿼터제를 부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함
- 장애인 관람석 확보에 대한 조례 실시
 - 문화예술 관람 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2012년 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관람석 확보를 즉각 현실화 시켜야 함
- 장애, 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그램 확대
 -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 서로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장려함
 - 문화예술사업 지원 시 장애 문화예술가와의 협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정 사업을 협업에 배정하도록 함

VI.

참고문헌

- 김두레, 이선우, 유동철, 권순애, 하소연 (2017). 부산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 김세훈 (200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기본연구 2004-0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주호 (2007). 문화예술교육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문화 예술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문화관광부 (2002).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중장기 발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 박광무 (2013). 한국 문화정책론. 서울: 김영사.
- 박신의(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혜자 (2011). 문화정책과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 방귀희, 김언지(2012). 한·일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장애인개발원 (pp 49-77)
- 신승환 (2008).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경기도 파주시: 한길아트.
- 양경희 (2008). 아동미술교육. 서울: 학지사.
- 양은아 (2012).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과 유형 분석: 2010년 평생교육통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22. 195-237.
- 이선향 (2013). 한국의 민주화와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론201, 16(3), 119-144.
- 이유리 (2016).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 이행에 관한 패러다임 분석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임학순 (2003). 문화콘텐츠 접근성, 그 의미와 정책과제. 예술경영연구. 3. 131-147.
- 장병용, 이윤희, 백승원, 김용진, 오윤지 (2017).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병태 (2010).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 (2014). 장애인 예술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갑영 (199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5,82-132.
- 정갑영, 김세훈, 전성수, 주대창 (2000). 초등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2014).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5(3), 91-116.
- 최보연 (201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탐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p1-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문화예술교육 핵심 용어 정립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 한국장애인문화협회(2005).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 황연주, 정연희 (2005). 문화예술교육의 미술교육적 논의. 미술교육논총, 19(1), 1-28.
- Arts Council England (2018). Developing a new strategy for Arts Council England
-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82). The arts in schools: principles, practices and provisio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15). The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 Edwards, L. C. (2002). The Creative Arts: New Jersey: Merrill Prentice Hall.
- Fowler, C. (1994). Strong arts, strong schools. Educational Leadership,

- November, 1-3.
- Fulford, G. (2007). Sharing our success: More case studies in Aboriginal schooling. Kelowna, BC, Canada: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xcellence in Education. Retrieved Dec. 14 at <http://sae.ca/upload/SOSMoreCaseStudies.pdf>.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2004). Arts and Disability Policies.
- Jeffers, C. S. (2009). On empathy: The mirror neuron system and ar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0(15).
- Jennifer Sullivan Sulewski, Heike Boeltzig, Rooshey Hasnain (2012). Arts and Disability: Intersecting Identities among Young Artist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 Lauret, J-M., & Marie, F. (2010). European Agenda for Culture. www.aurorankoulu.net.
- McCarthy, K. (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MG-218-WF).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NACCCE (1999). 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Sudbury: DfEE.
- NSW (2018) Strategic Framework 2018-2023.
- Parsons, M. J. & Blocker, H. G. (1993). 김광명 역(1998). 미학과 예술교육. 서울: 현대미학사.
- Reyhner, J., Gilbert, W. S., & Lockard, L. (2011). Honoring Our Heritage: Culture Appropriate Approaches For Teaching Indigenous Students. NORTHERNARIZONA UNIVERSITY. Flagstaff, Arizona.
- Serin, A. Y., & Yavuz, M. Z. (2010). A Critical Review of Status and Functions of Art Education in Modern Education and Solutional Proposals. *Journal of World of Turks, ZfWT*. 2(1), 385-390.
- <http://www.heart-heart.org/> 사단법인 하트하트 재단
- <https://www.arte.or.kr/index.d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http://cafe.naver.com/artspacejamsil> 서울시 잠실 창작스튜디오
- <https://www.sfac.or.kr/index.do> 서울문화재단

<http://www.jfac.kr/> 제주문화예술재단

<https://www.jejurehab.or.kr:4928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타잔센터 <https://www.semel.ucla.edu/tarjan>

미국국립장애인예술센터 <https://www.semel.ucla.edu/nadc>

웹진 이음 2호. 독일 장애예술인 빌리지

Ⅶ. 부 록

1.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설문지

ID			
----	--	--	--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 문화예술인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 051-745-7263, 7268
 ■ 부산대학교 강영심 교수 연구팀 ☎ 010-7541-3320, 010-7607-6615

안내문 확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설문 답안 확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조사원 이름		
조사 일시	2018년	월 일

II.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과 공간 영역

9.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 발표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0.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장애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②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③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④ 장애 문화예술인 이동편의 강화
⑤ 장애 문화예술인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⑥ 장애 문화예술인 공공쿼터제²⁾ 도입
⑦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비 지원

11.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있음 (11-1로 이동) ② 없음

11-1. 창작 공간이 있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 ① 개인 창작 공간, 자가 ② 개인 창작 공간, 유상 임대
③ 공동 창작 공간, 유상 임대 ④ 공동 창작 공간, 무상 임대

12.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 관련 발표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대관 경쟁률이 높음 ② 대관 비용이 높음
③ 장애인 편의 시설 부재 ④ 장애인 지원 인력의 부재
⑤ 시설 관계자의 인식 부족

2)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제도

15.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 관련 어떤 형태의 협업 경험이 있는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② 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 ③ 국제 교류 ④ 협업 경험이 없다.

IV. 교육 영역

16. 귀하의 예술적 재능은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 ① 유아기 (0세~7세, 초등학교 이전)
- ② 아동기 (8세~13세, 초등학교 시기)
- ③ 청소년기 (14세~19세, 중·고등학교 시기)
- ④ 성인기 이후 (20세 이후)

17. 귀하의 예술적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스스로 ② 부모
- ③ 학교 교사 ④ 예술 교육 담당 교사
- ⑤ 복지 기관 관련 담당자 ⑥ 주변 사람

18. 귀하가 예술적 재능을 발견한 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을 모 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예술 전문 학교(예술 중·고등 학교, 예술대학) 진학
- ②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내 예술 교실 참여
- ③ 예술 전문 사설학원 수강
- ④ 개인 지도와 사사
- ⑤ 평생교육 기관 내 예술 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
- ⑥ 예술 동호회 내부 교육

19. 귀하가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 기관의 부재
- ② 예술 전문인력의 부재
- ③ 정보 부족
- ④ 시설 및 기자재 부족
- 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20. 귀하는 지난 1년간 (2017. 10. 1. ~ 2018. 9. 30) 관객으로서 다음 분야를 관람하신 횟수는 몇 회입니까?

문화예술 행사	횟수	문화예술 행사	횟수
① 문학 행사 (문학제, 작가와의 만남 등)	()회	⑦ 영화 관람 (영화관에서)	()회
② 미술 전시회 (사진, 건축, 디자인 포함)	()회	⑧ 연예 관람 (콘서트, 마술, 비보이 등)	()회
③ 클래식 음악, 오페라 관람	()회	⑨ 박물관 관람 (과학관 등 포함)	()회
④ 전통예술 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회	⑩ 스포츠 관람 (경기장에서)	()회
⑤ 연극 관람 (뮤지컬, 너머별 등)	()회	⑪ 여행	()회
⑥ 무용 공연 관람 (발레 포함)	()회		

21. 위 관객으로서의 관람이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V. 창작 여건과 인식 영역

22. 귀하는 지난 3년간 (2015. 10. 1. ~ 2018. 9. 30.)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없는 경우 23으로 이동)

- 지원 기관 ()
-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원)

23. 지원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지원 정책을 몰라서 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 ③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④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 ⑤ 기타 ()

24. 귀하는 예술인패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5. 귀하는 부산문화재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25-1로 이동) ② 아니오

25-1. 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문화예술 단체를 통해 ② 지인의 소개
- ③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 ④ 인터넷 홈페이지
- ⑤ SNS ⑥ 기타 ()

26.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의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③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④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⑤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27.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만족한다.					
② 부산시의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만족한다.					
③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에 만족한다.					
④ 부산시에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다.					
⑤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다.					
⑥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⑦ 부산시는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 문화예술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다.					

28. 장애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지원과 정책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 ②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③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 ④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 ⑤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 ⑥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 ⑦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 ⑧ 문화예술 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 아래의 문항들은 일반적인 배경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내 용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 만 ()세
거주지	■ 거주지 ()구 ()동
거주 형태	① 독립(1인 가구) ② 가족과 동거 ③ 가족 외 친지 또는 지인과 동거 ④ 장애인 시설 거주
학력	① 무학 ② 중졸 이하 ③ 중학교 재학/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졸업 ⑤ 대학교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⑥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⑦ 대학원 재학/수료 ⑧ 석사/박사 ⑨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
장애 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시력, 시야결손)장애 ④ 청각(청력, 평형기능)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⑯ 정서행동장애 ⑰ 의사소통장애 ⑱ 학습장애

2.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5574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제3조)
- 나. 5년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제4조)
-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제5조)
- 라.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제6조)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주소: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홈페이지: www.bscaf.or.kr

전화: 051-744-7707

팩스: 051-744-7708~9

인쇄: 원 복사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